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박사학위논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유 향 숙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Related Variables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유 향 숙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유 향 숙

유향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면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민성 (인) 

위 원 고구려대학교 교수 곽 수관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희 (인) 

2015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v
그림목차	v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8
1. 가출청소년의 개념	8
1) 가출청소년의 정의	8
2) 가출청소년의 유형	9
2. 쉼터 가출청소년	11
1) 쉼터 가출청소년의 의미	11
2) 우리나라 쉼터 가출청소년의 현황	13
3.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16
1) 정서행동문제의 정의	16
2) 정서행동문제의 분류	19
3) 정서행동문제의 원인	20
4.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23
1)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특성	23
2)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관련변인	26
5.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35

III. 연구방법	39
1. 연구설계	39
2. 연구대상	39
3. 연구도구	40
1) 기초사항 질문지	40
2) 자기통제력 질문지	41
3) 자아존중감 질문지	41
4) 부모애착 질문지	41
5) 부모감독 질문지	42
6) 부모지지 질문지	42
7) 교사애착 질문지	42
8) 또래애착 질문지	43
9) 컴퓨터만족도 질문지	43
10) 청소년 정서행동특성 질문지	44
4. 연구절차	45
5. 자료분석	45
IV. 연구결과	47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47
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48
3.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49
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53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53
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56
V. 논 의	62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62

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64
3.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67
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72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72
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77
VI. 결론 및 제언	83
1. 결 론	83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83
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84
3)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84
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86
2. 제 언	89
■ 참고문헌	92
■ 부 록	109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 가출의 유형 분류	10
<표 II-2> 우리나라 청소년컴터의 현황	14
<표 II-3>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18
<표 III-1> 연구대상 기초사항	40
<표 III-2> K-YSR의 신뢰도(Cronbach α)와 진단기준	44
<표 III-3> 기술통계량	46
<표 IV-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47
<표 IV-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정상, (준)임상	48
<표 IV-3>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	51
<표 IV-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분석	54
<표 IV-5>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56
<표 V-1> 일반청소년과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의 정도 비교	63
<표 V-2> 일반청소년과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준)임상유형 비교	66

그림 목 차

[그림 II-1]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임상적, 교육적 정의의 포함관계	19
---	----

ABSTRAC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Related Variables

Yoo, Hyang sook

Advisor : Seunghye L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ecently, the number of runaway adolescents has increased and various researches on them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staying in youth shelt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and analyze their relationship with related variables.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to what degree, do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hav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Second, what typ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o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have?

Third, is there a difference in related variables(gender, age, self-control,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suppor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helte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Fourth, what is the effect of related variables(gender, age, self-

control,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suppor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helter satisfaction) on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A questionnaire survey based on the research questions was conducted with 250 adolescents from 13 to 18 years old who stayed in 33 youth shelter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0.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the highest level was rule violation, followed by aggressive behaviors, accident problems, and withdrawal/depression. Externalizing problems were higher than internalizing problems. In particular, rule violation, aggressive behaviors, and accident problems were relatively high in ex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behavior problems were also high.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as higher in runaway adolescents than in general adolescents.

Second, for the typ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rule violation was very high in (sub)clinical problems and aggressive behaviors, accident problems, social immaturity, and withdrawal/depression were relatively high. It suggested that runaway adolescents' problems were mainly caused by rule violation. Externalizing problems were higher than internalizing problems, which was characterized by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It indicated that the percentage of externalizing problems was higher than that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sub)clinical percentage was somewhat high in total behavioral problem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sonal variables(gender, age, self-control, and self-esteem), family variables(parental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and parental support), and social variables(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helter satisfaction) according to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In particular, a difference between personal variables was the highest because a personal difference was big as individual's invisible and potenti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difference can be influenced more greatly by family and social variables.

Fourth, for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related variables(gender, age, self-control,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suppor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helter satisfaction) in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the order of related variables was very different according to eac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But the correlation of attention problem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arental monitoring, teacher attachment, and shelter satisfaction was insignificant in related variables. The predi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related variables(gender, age, self-control, self-esteem,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support,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shelter satisfaction) was also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related variables according to eac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 was very different in order.

Today runaway adolescent's problems are dealt in the national level beyond the social level. Since adolescents are our dream and hope in the Korea's future, it is necessary to have high interest and give cooperation regarding their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further researches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runaway adolescents in youth shelt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의 건전한 성장은 안정적인 성인기 진입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또한,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획일적인 학교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다. 오늘날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안정 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여 올바른 성장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부정적인 생활경험을 하게 된다면 더욱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진되며(김성경, 2008) 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가출은 성인의 경우와 달리 그 가출 당사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화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향락적·퇴폐적인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기가 지닌 특수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폭력, 절도, 약물중독, 윤락, 가출과 같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청소년가출의 심각성은 가출청소년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점점 그 연령이 낮아지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여성가족부(2010)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10) 자료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최장가출기간이 남자는 평균 161.1일, 여자평균 182.3일로 최장가출기간이 평균 6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가출 연령도 남자 13.3세, 여자 13.8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소년들이 가출 후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출청소년’에 관하여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의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Robert, 1987)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가출이 문제시 되는 것은 단순히 집

을 뛰쳐나가기 때문이 아니라, 가출 후 그들의 생활이 매우 위험하고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에 쉽게 져어들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기 존재감 상실, 자살충동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출청소년의 유형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이응교, 2005). 첫째는 안정된 숙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이나 보호기관 등의 시설과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노숙형, 둘째는 구숙을 싫어하는 거부형, 셋째는 집과 거리를 지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전환형, 넷째는 가출청소년의 자립과 심리적 재활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탐색형, 다섯째는 가정에서 갑자기 사업실패, 부모의 이혼, 가정해체 등을 겪게 되어 집을 떠나는 경우의 안정형, 여섯째는 정신분열, 우울증, 성격장애, 행동장애, 약물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특수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특성을 살펴보면 자살 생각에 대한 비율이 높고 스트레스, 우울함이 반복되면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은, 문성호, 2008)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으며, 우울과 불안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66% 이상이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를 하고(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정의중, 2006), 오랜 거리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과 영양 상태가 나빠서 영양결핍이나 피부병 등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윤현영, 2005). 백혜정, 방은령(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실태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가출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일탈 행동 및 피·가해 경험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출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요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개인요인으로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Cullinan, Epstein, & Kauffman, 1984). 남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중2부터 고2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나지만, 여학생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외현화 행동문제(신체적인 공격)를 더 많이 나타내며, 더 활동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이경남, 2002). 그리고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출충동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게 나왔지만 가출경험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문제우, 2012). 연령에 따른 가출빈도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

수록 반복 가출 내지는 만성가출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상무, 남성희, 2012).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감과 평정감이 낮다. 이는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쉽게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타인을 괴롭히는 등의 일탈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민수홍, 2006).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특징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정과 학교에서 반복된 좌절로 인하여 비규범성, 낮은 신뢰감, 낮은 직업에의 열망, 불안과 방어적 경향, 지나친 충동성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등이 있다(김향초, 1998; 안창규 외, 1994).

다음으로 가족요인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정과 분리됨으로써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갖게 된다. 가출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학령기에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가출은 부모의 문제행동, 의사소통의 불성실, 음박, 평가형이, 방임, 신체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가족기능의 가족 애착이 영향을 미친다(김경희, 김지수, 2007). 특히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완충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청소년 대부분의 생활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 학업, 적응, 문제 행동, 비행 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박소진, 2006). 따라서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무엇을 하며 친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적절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출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반대로 너무 소홀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서찬란, 2005).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발달 및 문제행동의 감소에도 중요한 요인이다(이경주, 1997).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경우에 서도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수용적 지지를 원하는 양가의 감정을 갖는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Erikson, 1959).

마지막으로 사회요인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이 사회문제로 부상되는 것은 이들은 대부분 가출 후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의 교육 박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학교요인과 가출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친밀성, 교사의 태도 그리고 체벌경험이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문조, 전귀연, 2002; 조학래, 2004; 정정은, 문성호, 2008). 가출에 의

한 무단결석은 학업 포기과 학업의 중단에 이르게 되며, 이는 올바른 전인교육 등의 집단 사회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천정웅 등, 2013).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 가정, 학교 및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순, 김혜원, 2007).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의 학업 성취, 학교에 대한 태도, 학문적 자아개념, 정신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임규혁, 2007). 하지만 청소년들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er, 1983). 그 뿐만 아니라 가출 후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점, 주차관리, 전단지 배포, PC방 등에서의 아르바이트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건딜 수 없는 경제적 빈곤을 안겨주었고 이에 차탈이, 마트절도, 성매매 등의 범법행위 및 비행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청소년 쉼터는 집과 가족을 떠남과 동시에 얻게 되었던 좌절과 고통의 순간에서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주었다(윤양숙, 2013).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을 대신하는 양육환경으로서 청소년 적응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일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처럼 위험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 쉼터와 같은 서비스는 보호요인 또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유진, 김영희, 2009).

이상의 배경아래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남미애(2011)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폭행절도와 같은 비행,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같은 행동 등은 쉼터 입소 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청소년 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을 보면, 자아존중감이 낮고, 의타적이며, 미성숙한 행동을 많이 하고, 쉽게 흥분하며,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갖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족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은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이희춘, 2013), 이런 가출청소년들을 돌보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로서 청소년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어떠한가?
- 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은 어떠한가?
- 3)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관련변인들(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4)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관련변인들(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4-1)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4-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의 예측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① 쉼터 가출청소년

본 연구에서 쉼터 가출청소년은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에서 머물고 있는 만13세에서 만18세의 청소년을 말한다.

② 정서 행동문제

본 연구에서 정서 행동문제 정도란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형(Korean-Youth Self Report: K-YSR)」(오경자, 김영아, 2011)의 문제행동 증후군척도인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

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기타문제,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를 말한다.

③ 정서행동문제 정도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정도란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문제의 T점수를 말한다.

④ 정서행동문제 유형

본 연구에서 정서행동문제 유형이란 다음과 같은 구분을 의미한다.

－ 정상: K-YSR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T점수는 65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T점수가 6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준)임상: K-YSR의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T점수가 65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의 T점수는 6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출청소년의 개념

1) 가출청소년의 정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국내외의 배경과 상황에 맞추어 학자마다 가출의 시기와 가출의 이유 및 성격 가출의 특성 등을 나누어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 국내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홍봉선과 남미애(2009)는 가출청소년이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가정에서 나온 후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향초(1998)는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귀가하지 않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 정의하였다.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보이거나 학자마다 정의를 규정하면서 연령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그 연령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이희춘(2013)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족 등 보호자 지지나 동의 없이 가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이탈하여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노출된 청소년’으로 본다. 김범구(2004)는 사전적 의미에서 가출이란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으로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가출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자기 현실도피 행위로써 집을 나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상철(1999)은 청소년가출의 심리 자체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이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벗어남으로써 적절한 물리적·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소외감과 신체적 고충, 지위의 상실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외국의 경우 Miller(1980)는 가출청소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17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첫째,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난 자, 둘째, 법 집행기관이나 서비스기관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정의된 자, 셋째, 스스로 또는 주요 타인에 의해 가출청소년으로 인정된 자로 정의한다. 여기서 가출청소년의 연령이 17세 이하라고 명시된 것은 미국에서는 18세가 되면 성인으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이진로, 2011 재인용).

미국의 전국 가출청소년 서비스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Runaway & Youth Service)에서는 청소년의 박탈당한 권리에 초점을 두어 가출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집에서 나와 최소 하룻밤 밖에서 지낸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인 가출청소년(runaways), 보호체계에서 제외된 노숙청소년(homeless youth), 보호자로부터 쫓겨나 돌아갈 수 없는 버려진 청소년(throwaways),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체계 청소년(system youth)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김향초, 2009; 이복희, 2008 재인용).

이렇듯 학자마다 가출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 한가지의 정의로만 청소년의 가출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내나 국외에서 공통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생활하는 청소년’들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통념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학령기와 맞물려 사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청소년을 중·고등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로 부모나 보호자 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떠나있는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출청소년의 조작적 정의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을 떠나있는 만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2) 가출청소년의 유형

청소년 가출의 유형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보이듯이 청소년 가출을 유형별로 가출인원, 가출횟수, 가출목적 등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은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이희춘, 2013).

<표 II-1> 청소년 가출의 유형 분류

연구자	분류기준	유 형
유호석 (2007)	가출인원	· 개인적 가출 · 집단 가출 · 연쇄적 가출 · 만성 가출 · 재가출
이해주, 이미리, 모경환 (2006)	가출횟수	· 일과성 가출 · 반복성 가출
홍봉선, 남미애 (2007)	가출목적	· 시위성 가출 · 유희성 가출 · 방랑성 가출 · 추방형 가출 · 생존형 가출

이와 같이 가출유형을 분류하면, 가출인원에 따라 구분한 혼자서 하는 개인적 가출, 여러 명이 모여 집을 나간 집단 가출, 비가출 친구를 끌어내는 연쇄적 가출, 만성가출 친구를 따라 집을 나가는 재가출로 구분하고(유호석, 2007), 가출 횟수에 따라서는 일회성의 일과성 가출, 지속해서 하는 반복성 가출로 구분하고 있다(이해주 등, 2006).

또한, 가출목적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시위성에 가까운 가출, 친구와 놀이를 위한 유희성 가출, 자유로운 거리생활을 위한 방랑성 가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추방성 가출, 가족학대에 못 견디고 거리로 나온 생존형 가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홍봉선, 남미애, 2007).

그 외에도 Homer(1973)는 청소년가출을 탈출형 가출(runway from)과 추구형(runway to)로 구분하였다, 탈출형 가출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참고 지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하여 가출을 선택한 경우이고, 추구형 가출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이나 모험 등을 찾아 선택하여 감행하는 가출이다. 그러나 Homer의 구분은 다양한 가출 동기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가출유형을 단순히 양분화 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백혜정, 방은령,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Homer의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할 뿐 아니라, 그 분류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어서 때문에 분류기준에는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가출의 원인과 동기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가출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류하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가출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가출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처럼 가출유형을 분류하는

목적은 가출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방법을 찾아내려는 전제가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분류나 설명은 그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한다. 쉼터 가출청소년의 경우 위의 <표 II-1>에 나타나는 가출의 유형 전반에 걸쳐 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소년들이 무작정 가출 후 활용되는 생활 장소 실태를 살펴보면 친구 집, 안면 있는 사람의 집이 43.3%로 가장 높았고, 찜질방, 옥상, 만화방, PC방 순위로 나타났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는 쉼터 가출청소년은 가출청소년 중에서도 가출 후에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전체 가출청소년 중에서 보호체계 청소년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가출청소년들의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에 대한 정보와 시설 이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거리생활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거리를 전전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하여 정부, 청소년 상담지원서비스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일시보호소, 단기보호소, 중·장기 쉼터 등을 통해서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하고 있으나 가출청소년의 저연령화와 가출 및 재가출, 장기가출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안전망 서비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쉼터 가출청소년

1) 쉼터 가출청소년의 의미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핵심기능을 정리하면 일시쉼터(24시간~7일)는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아웃리치), 단기쉼터(3개월 내외)는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중장기쉼터(2년 내)는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으로 규정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쉼터란 가출상태이거나 혹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 보호자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 및 상담, 교육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위기 보호적 성격의 일시보호시설과 치료적 성격의 중·장기 보호시설을 포괄하는 청소년 복지시설로,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며 가정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이귀희, 2003). 이런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는 언제나 개방되어서 유해환경과 착취노동에서 벗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관련법을 제정비 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과 대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범구, 2004). 가출청소년의 쉼터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가출청소년들은 원가족에 대한 박탈감을 보호시설에서 보상받기를 요구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시설의 또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재가출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은 차고 넘쳐서 자칫 시설 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운영이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획일적인 명령,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어 청소년들을 다시 거리로 내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의 관계자 및 시설 또래들로 인한 지지 관계 형성은 청소년쉼터가 가출 청소년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범구, 2004). 청소년 쉼터는 우선 가출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쉼터의 엄격한 규율의 통제는 쉼터생활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을 대신하는 양육환경으로서 청소년적응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일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처럼 위험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쉼터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보호요인 또는 완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유진, 김영희, 2009). 대다수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는 주거문제, 경제적 어려움, 교육문제, 건강문제, 가족문제, 심리문제, 비행문제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출 기간에 가출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돈과 주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가출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이것에 대한 욕구는 더욱 절실하게 된다(홍봉선, 남미애, 2007).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쉼터거주 기간이 자립 의지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김종삼, 2008). 조규필(2005)은 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 가출청소년의 적응 유연성 신념체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쉼터 선생님 지지는 보호서비스 기간이 4개월 이상인 가출청소년의 적응 유연성 신념체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은 그들의 적응 및 생활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청소년쉼터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만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쉼터마다 하는 기능은 유형별로 다소 다르지만 위기에 처한 가출청소년의 생활보장 뿐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 활동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일시쉼터의 기능을 보면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단기쉼터의 기능은 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예방 활동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며 중장기쉼터로는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를 경험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산층 청소년 비행의 증가, 학생범죄증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유호석, 2008).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쉼터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충족시키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탈을 넘어서는 범죄 관련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우리나라 쉼터 가출청소년의 현황

우리나라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보호활동, 청소년 문제 예방활동, 홍보활동, 사후지도, 연계·협력활동, 장기 주거서비스, 교육서비스, 직업알선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서비스 등으로, 단순히 보호의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이 당면하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민희, 1998).

일시쉼터는 전국에 28개소로 가출청소년을 24시간~7일 내에 보호하는 시설이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들이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쉼터를 방문하여 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쉼터는 전국에 48개소로 청소년쉼터 중 시설 수가 가장 많으며, 각 지역에 평균 2개 이상의 기관이 분포되어 있다. 중장기쉼터는 전국에 43개소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식주, 경제관리, 건강관리 등 기초생활관리 서비스, 직업체험, 직업학교연계 등 직업지원서비스, 학업지원서비스, 정서안정과 개별상담, 사례관리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쉼터는 평균 13명의 청소년이, 중장기 쉼터에는 10명의 청소년이 입소하여 생활을 한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욕구 수준을 고려한 서비스 차별화

가 제공 되면서 최근에는 컴퓨터 유형마다 성격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일시컴퓨터 28개소, 단기컴퓨터 48개소, 중장기컴퓨터 43개소 등 총 1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한국청소년컴퓨터협의회 홈페이지). 여성가족부(2010)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초 가출 연령이 남자 13.3세, 여자 13.8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이들 청소년의 가출사유는 대체로 가정갈등과 가족해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기간은 남자 평균 161.1일, 여자 평균 182.3일이었으며, 약 27.2%가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자로 조사되었다. 컴퓨터 청소년들 중 75.0%가 귀가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반복되는 가정 문제로 인하여 부모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방임 경험 등이 장기가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2>에 우리나라 청소년컴퓨터의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2> 우리나라 청소년컴퓨터의 현황

지역	일시컴퓨터	단기컴퓨터	중장기컴퓨터	계
서울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강남구청소년컴퓨터	금천중장기청소년컴퓨터	13
	서울시립신림청소년컴퓨터	강서청소년컴퓨터	서울시립청소년이동컴퓨터(서남권)	
	서울시립용산청소년컴퓨터	망우청소년 단기컴퓨터	서울시립청소년이동컴퓨터(서북권)	
	.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컴퓨터	성심디딤돌청소년 컴퓨터	
	.	서울시립신림중기생활전환컴퓨터	어울림청소년컴퓨터	
계	3	5	5	
경기도	남양주시일시청소년컴퓨터	고양청소년컴퓨터 등지	고양열린청소년컴퓨터	27
	부천시청소년일시컴퓨터	부천시모퉁이청소년컴퓨터	구리시여자청소년컴퓨터보급자리	
	성남시청소년일시컴퓨터	성남시 새날을 여는 청소년컴퓨터	군포시청소년컴퓨터하나로	
	.	성남시푸른청소년컴퓨터	민들레뜨락	
	.	수원남자청소년컴퓨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컴퓨터	
	.	수원여자청소년컴퓨터	성남시중장기남자청소년컴퓨터	
	.	시흥시단기여자청소년컴퓨터자연인	안양여자청소년컴퓨터호숙	
	.	안산시청소년남자컴퓨터정검다리	용인푸른꿈청소년여자컴퓨터	
	.	안산시청소년컴퓨터 한신	의정부시이동청소년컴퓨터	
	.	안양시청소년컴퓨터FORYOU	.	
	.	용인푸른꿈청소년남자컴퓨터	.	
	.	용인푸른꿈청소년남자컴퓨터	.	
	.	의정부시여자청소년컴퓨터	.	
	.	평택시청소년컴퓨터	.	
	.	화성시여자청소년컴퓨터	.	
계	3	15	9	

<표 II-2> 계속됨

지역	일시컴터	단기컴터	중장기컴터	계
인천시	인천광역시우리들청소년컴터	청소년여자단기컴터하늘목장	인천광역시청소년중장기컴터(예꿈)	8
	인천광역시일시컴터한울타리	.	인천광역시청소년중장기컴터별마루	
	인천광역시청소년컴터바다의별	.	.	
	인천광역시청소년여자컴터하모니	.	.	
	인천광역시청소년일시컴터꿈꾸는별	.	.	
계	6	1	2	
부산시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컴터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컴터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컴터	6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컴터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컴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컴터	
계	2	2	2	
대전시	대전광역시이동일시청소년컴터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컴터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컴터	6
	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우리자리)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컴터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여자컴터	
계	2	2	2	
대구시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컴터	달서구청소년컴터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컴터	5
	.	대구광역시청소년컴터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컴터	
계	1	2	2	
광주시	광주청소년컴터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컴터	광주광역시중장기청소년컴터(백지컴터)	5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컴터	.	광주광역시청소년중장기남자컴터	
계	2	1	2	
울산시	.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컴터	울산광역시청소년컴터	4
	.	울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컴터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컴터	
계	0	2	2	
강원도	강원도일시청소년컴터	춘천YMCA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컴터	강원도중장기청소년컴터(보금자리)	5
	.	춘천YMCA강원도단기여자청소년컴터	강원도중장기강자청소년컴터(루치아)	
계	1	2	2	
충청북도	청주시청소년일시컴터	청주청소년컴터	디딤돌청소년컴터	5
	.	청주시청소년컴터 느티나무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컴터	
계	1	2	2	
충청남도	청로일시청소년컴터	아산옥련청소년컴터	청로여자청소년컴터	6
	.	천안청소년단기남자컴터	.	
	.	천안청소년단기여자컴터	.	
	.	천안청소년중장기컴터	.	
계	1	4	1	

<표 II-2> 계속됨

지역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계
전라북도	익산청소년일시쉼터	전주청소년한울안쉼터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5
	.	전주푸른청소년쉼터	임마누엘청소년쉼터	
계	1	2	2	
전라남도	목포시단기남자청소년쉼터	목포시단기남자청소년쉼터	목포시단기남자청소년쉼터	7
	여수시일시청소년쉼터	유달단기여자청소년쉼터	목포시청소년중장기나룻쉼터	
	.	.	여수중장기청소년쉼터	
계	2	2	3	
경상북도	울진군청소년일시쉼터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경상북도청소년쉼터 (희망의샘자리)	6
	.	구미시청소년쉼터	포항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포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계	1	2	3	
경상남도	경상남도꿈누리청소년쉼터	김해YMCA단기여자청소년쉼터	마야청소년쉼터	5
	.	하라단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집	
계	1	2	2	
제주도	제주청소년일시쉼터	서귀포청소년쉼터	성지청소년쉼터	5
	.	제주청소년쉼터	온누리청소년쉼터	
계	1	2	2	
총	28개소	48개소	43개소	119개소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 www.jikimi.or.kr

3. 정서행동문제의 개념

1) 정서행동문제의 정의

2013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매뉴얼’에서는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성장 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서행동문제(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에 대한 정의는 각 단체나 개인의 견해, 선호도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데, 지

난 수십 년간 공포증, 위축, 불안, 우울, 선택적 함구증,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다양한 상태를 지칭하는 총괄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방명애, 이효신, 2002). 특수교육분야에서 다루는 장애유형들 가운데 하나인 정서행동장애의 경우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다(정대영, 2013). 따라서 관련 문헌들(정대영, 2013, 전현선 외, 2012)에서는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로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된 있는 정의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승희(2012)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설정한 법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정서행동장애를 이해하고 중재하는 데 한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에 영향을 주어 출현율이 낮게 산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근래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예방 및 조기 중재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로 법적 정의를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동향과는 괴리감이 있다. 또한 이승희(2012)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서 목적(즉, 누가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법적 정의(legal definition), 임상적 정의(clinical definition), 교육적 정의(educational definition)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분류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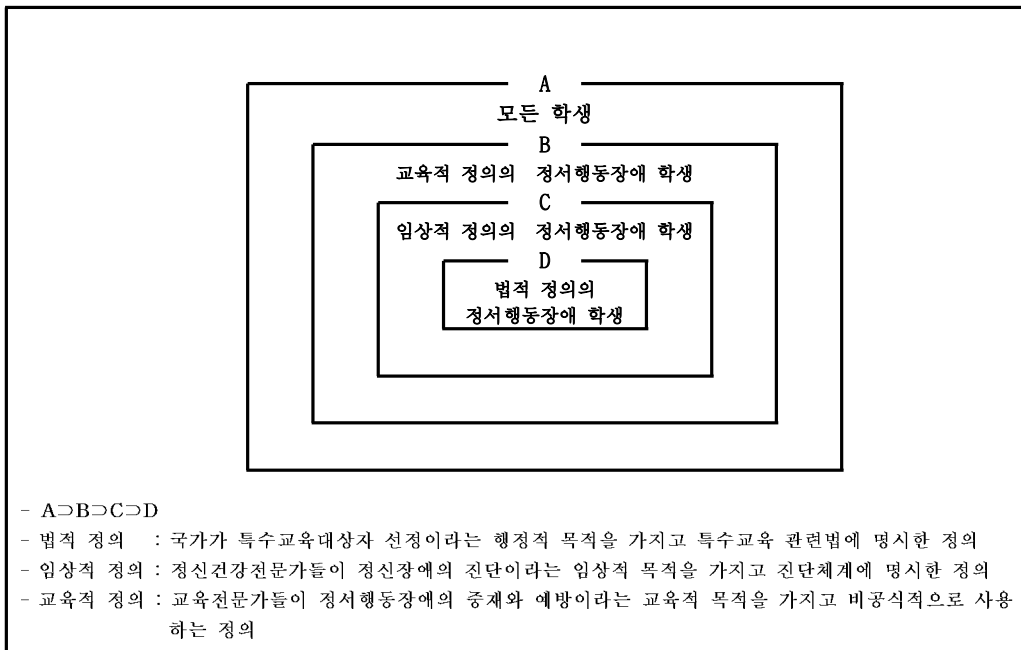
먼저,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특수교육 관련법에 명시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표 II-3>에 제시된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DEA, 2004)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 2007)에 명시된 정의가 법적 정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서행동장애의 임상적 정의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의 진단이라는 임상적 목적을 가지고 진단체계에 명시한 정의라고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 명시된 정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정의는 교육전문가들이 정서행동장애의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는 교육전문가들의 정서행동장애의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정의나 임상적 정의처럼 공식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발달이나 타인의 생활 혹은 양자 모두

를 뚜렷이 방해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위험이 있는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이승희, 2012, p. 45)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승희(2012)는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세 가지(법적 정의, 임상적 정의, 교육적 정의)로 분류하면서 포함관계도 [그림 II-1] 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1] 에 제시된 정의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정서행동장애의 교육적 정의는 정서행동문제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3>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미국 「장애인 교육법」 (IDEA, 2004)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수교육법」 (교육인적자원부, 2007)
(i) 정서장애는 아동의 교육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현저한 정도로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는 상태를 의미한다 (A)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학습상의 무능력. (B) 또래 및 교사와 만족할 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함. (C)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형태의 행동이나 감정. (D)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감. (E) 개인적 또는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증상이나 두려움을 보이는 경향. (ii) 정서장애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위 (i)에 의해 정서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별되지 않는 한,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아동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 감각적 ·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이나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되는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림 II-1] 정서행동장애의 법적, 임상적, 교육적 정의의 포함관계

자료출처: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의 출현율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고찰. **정서행동장애 연구**, 28(3), 37-58, (p.46)

2) 정서행동문제의 분류

(1) 임상적 분류

임상적 분류(clinical classification)는 범주적 분류 또는 의학적 분류라고도 하는데 이 분류에 의한 대표적인 분류체계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이다. DSM은 미국정신의학회(APA)가 발간하는 정신장애 분류체계로서 특정 특성들이 함께 발생한다는 임상적 합의에 의해 개발된다. 최근에 DSM-5(APA, 2013)가 발간되었는데 DSM-5에는 주요 정신장애 범주(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성기

능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인지장애, 성격장애, 변태성욕장애, 기타 정신질환 등)가 제시되어 있다.

(2) 경험적 분류

경험적 분류(empirical classification)는 차원적 분류 또는 교육적 분류라고도 하는데 이 분류에 의한 대표적인 분류체계가 「Achenbach 경험기반 사정체계(ASEBA)」(Achenbach & Rescorla, 2001)이다. ASEBA에는 부모용인 CBCL, 교사용인 TRF, 자기보고용인 YSR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경험적 분석을 통해 문제행동을 8개의 협대역 차원(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과 2개의 광대역 차원(내재화, 외현화)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정서행동문제의 원인

(1) 생물학적 요인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은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크게 유전적 요인, 뇌의 손상이나 기능장애, 영양실조나 알레르기, 기질을 들 수 있다(유재연 외, 2009). 일부 연구자들은 모든 아동이 생물학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는다. 기질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개인의 행동양식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있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쉬운 기질은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고(Smith & Prior, 1995), 어린 시기의 까다로운 기질은 청소년기에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다(Caspi, Henry, McGee, Moffitt, & Silva, 1995).

아이의 타고난 기질 자체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문제의 소인은 될 수 있다(Carey, 1998). 기질 외에도 질병, 영양부족, 뇌 손상 등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성향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약물 등의 독극물 남용 역시 심각한 정서행동장애의 발생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신 분열의 경우 원인이

주로 유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체계가 어떻게 장애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이소현, 박은혜, 2006). 유전학자들은 행동을 직접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뇌장애를 가진 많은 아동이 정서행동장애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Werry, 1979). 생득적 기질은 양육되는 방식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소위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아동들은 정서행동장애로 발현될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질병이나 영양부족, 뇌 손상, 약물 남용 등도 정서행동문제의 소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다(이성봉, 방명애, 김은경, 박지연, 2010).

(2) 심리사회적 요인

Dodge(1993)는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에는 첫째, 불리한 초기 양육환경, 둘째, 학교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유형, 그리고 셋째, 또래들에 의한 사회적 거부 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연구는 이런 인과적 요인들이 있다는 Dodge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Patterson, Reid, & Dishion, 1992; Sprague & Walker, 2000).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환경은 가정,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이다.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이바지하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박미자, 이창식, 2008). 자기통제력(고정자, 2005; 김희화, 2004)등 과 같은 내적 변수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영경(2007)의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많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여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더 많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은 가족의 형성과 부모의 훈육방식, 이혼과 편부모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 또는 태도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해체를 경험한 자녀들은 분노, 죄의식, 왜곡된 자아개념, 낮은 자존감 형성과 같은 정서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건강, 인지, 학업성취 등 영역뿐 아니라 정서행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게 한다(윤혜미, 2005). Kauffman(1993)는 이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되었는데(Chen, Wang, Chen, & Liu, 2002), 부모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이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형성시키게 된다고 하였다(김귀연, 2005). Hosp와 Resch(2002)는 빈곤의 경우는 정서·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기여요인으로 입증되고 있는데, 실제로 정서·행동장애의 38%가 극빈층에서 32%는 저 소득층에서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다(Fujiura & Yamaki, 2000). 그러나 빈곤층 가정에서 성장한 모든 아동이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많은 아동이 긍정적인 정서·행동의 발달을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이소현, 박은혜, 2006).

학교요인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정 외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다. 정서행동장애 아동 중에서 학령기가 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 아동들도 있지만 학교에 입학한 후에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장애를 보이게 되는 아동들도 있다.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이 또래나 교사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서행동문제를 일으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이소현, 박은혜, 2006). 환경은 인간의 발달과정 중에서 가장 급격한 발달을 가져오는 시기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Bloom, 1976). 정서·행동장애아동의 대부분은 학령기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달에 따른 연령 문제가 아니라 학교라는 환경 내에서 규칙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다양한 문제를 표출시키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아동은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성봉 외, 2010). 학생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또래와 교제할 때 그들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부수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청소년의 또래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또래지지가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재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경험하였거나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낮은 집단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한현아, 2008). 이처럼

정서행동장애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 대한 개입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4.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1)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특성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기, 제2의 탄생기, 주변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시기 자체가 발달 단계상 불안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보이는 이러한 문제 행동 및 여타 불안정한 특징들이 정상발달의 한 단면이 아니라 성인기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병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안동현 외, 2007). Kazdin(1993) 또한 역기능적 행동이나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성인기까지 장애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가 다소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8, 2009, 2010;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역기능,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사항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관심 영역으로 우선 분류된다(김동기, 홍세희, 2007; 조아미, 2011; 한상철, 2008).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심리, 사회적 문제 및 정신장애를 갖고 있으며 이에 현실에 대한 반항적, 폐쇄적 성격과 호기심, 낮은 소속감과 낮은 자아 정체감, 인내력이 부족하고, 과잉보호에 의한 심약한 의지력, 갈등, 고민, 불안정한 정서 상태 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을 갖고 있어 충동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가족 외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대처 기술의 부족, 외부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 성격, 무기력감과 공허한 마음 등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은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구자천, 2008).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인 성격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에 직면하기 힘들어하며 각종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내적 능력의 부족이라는 개인적 요인들이 가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춘, 2013).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서 심리적 이상 혹은 부정적인 태도 등을 보인다는 관점이다. 개인적 요인의 고찰은 원래 가출의 원인이 개인의 정신 병리적 현상에 있다는 사실에 비중을 두면서 시작되었다(정운숙, 박신애, 2001).

청소년가출은 발달단계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자아 정체감의 성취 등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청소년은 자아실현의 욕구와 애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며,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다. 송민진(2006)은 가출청소년은 불평, 불만에 의해 집을 뛰쳐나왔다기보다는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양육 받지 못하고 유기된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고, 정정은(2008)도 가출청소년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집을 나온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이해하고 있다.

가출 문제행동을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으로 세분화를 시도한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이 가출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가출충동의 욕구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문제우, 2012). 가출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가출 후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신 건강상의 장애를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한상철, 2001). Roberts(1982)는 낮은 충동 억제, 신경증, 자기애적 인격장애, 부정적 자아개념에서 가출이 비롯된다고 보고하고, 특히 부정적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가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행과 부적응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철(1992)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충동조절능력이 낮아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사소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가출행동을 선택하게 됨을 밝혔다. 중고생 9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혜경, 2000)에서도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보다 유약성, 충동성, 경조성, 우울성, 편집성, 괴리성 등의 성격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환과 방승규(1976)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수용하게 되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가출을 시도하지 않는 데 반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가출을 하게 됨을 보여주며,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김향초, 1998)에

서도 대상자들은 자존감이 낮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반복된 좌절로 인해 규범성이 낮고, 불안이 높고, 방어적이고, 충동적이고, 통제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이 지니는 내재화문제를 살펴보면, 가출청소년의 정신 병리를 평가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가출청소년들은 임상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생각에 대한 비율이 높고 스트레스, 우울함이 반복되면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은, 문성호, 2008). 외현화문제로는 약물, 술 등의 사용 비율이 높고, 재가출과 장기가출이 반복되고, 가출횟수에 따라 성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가출은 비행에 영향을 주게 되고, 거리의 생존을 위해 비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출청소년들은 폭력피해, 학업중단의 경험률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경은 외, 2008). 가출청소년은 학교나 가정 등으로부터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만큼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기회가 많아진다. 실제 가출청소년 과 청소년쉼터 실태조사(한국청소년협의회, 2010)에서는 가출 전·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가출 이전에도 문제행동 경향을 보였지만 가출 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 가운데 집단 괴롭힘 가해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이해경, 김혜원, 2001), 가출청소년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조차 없이 무기력하고 의지가 약하며 자신의 능력을 전혀 모른 채 자신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타인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며 쉽게 분노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회조차 회피하곤 한다(윤현영, 김지혜, 황동아, 2006).

가출청소년이 보이는 대표적인 정서적인 상태는 무기력함과 낮은 자존감인데, 이러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능력도 낮게 평가하며,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내면에 깔려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의욕을 갖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동시에,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대처능력이 모자란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연성진, 민수홍, 2004). 정신병질은 공감능력의 결여,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지속적이고 빈번하며 다양하게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동 등을 보이는 성격적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장유정, 2010), 주로 대인관계,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 논의된다. 특히 정서적 측면인 냉담·무정서는 성인의 정신병질을 개념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며 평생 지속형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정서적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Frick, 1998). 또한 낮은 수준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양심, 도덕성, 공감능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낸다(Frick, 1998; Frick & Dicken, 2006).

이러한 특성은 처벌을 피하기보다 보상을 얻기 위해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 가출청소년 정서행동문제 관련변인

(1) 개인변인

① 성별

전국 중·고등학교 청소년(일반청소년 13,770명 및 위기청소년 1,597명)을 대상으로 한 ‘2008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에 따르면 가출경험이 일반청소년은 12.8% 위기청소년은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비교해 보면,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남자 청소년(14.9%)이 여자 청소년(10.4%)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지만 위기청소년의 경우는 여자 청소년(86.7%)이 남자 청소년(60.9%)보다 가출경험이 더 많았다. 청소년 가출의 관련 변인들을 밝히기 위한 연구(김영순, 김혜원, 2007)에서도 총 11,180명의 남녀 중고등학생 가운데 5.9%의 응답자들이 가출경험이 있었고 남자보다 여자가 가출경험이 많고 고등학생들이 가출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정도(또는 출현율)를 살펴보면, 정서행동장애로 확인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Cullinan, Epstein, & Kauffman, 1984). 과학기술부(2012)에 따르면, 전국 초, 중, 고 학생들의 관심군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16.8%(56만 8000), 여학생은 15.7%(48만5000명)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8만3000여명 많았다. 반면 주의군은 여학생이

5.2%(12만2000여명)로 남학생 3.9%(10만1000여명)보다 2만1000여명 많다고 하였다. 반면, 남학생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우울/불안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다(Rudan et al., 2005; Tepper et al., 2008; Van Der Ende & Verhulst, 2005). 남학생에게는 외현화행동문제(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파괴적 행동)가 많이 나타났고, 여학생에게는 내재화행동문제(우울, 불안)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였다(민성길 외 1997).

② 연령

‘2009 아동청소년 가출 실태조사’(백혜정, 2009)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전체 청소년(9,750명)의 약 8%(780명)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이 3.1%, 중학생이 8.1% 고등학생이 12.1%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가출 경험이 더 많았다. 즉, 이 결과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가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는 중2부터 고2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행동문제(신체적인 공격)를 더 많이 나타내며, 더 활동적이고 충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이경남, 2002).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한 연구들에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가출충동이 더 높지만 가출경험은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문제우, 2012)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복 가출 내지는 만성가출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상무, 남성희 2012). 또한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가출청소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박금혜, 2005), 쉼터이용 청소년의 연령대는 16~18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자기통제력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비교한 선행연구(한상철, 2006)결과 비행청소년들의 자기 통제력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자기통제가 높은 사람들은 더 대인관계가 좋으며 강박이나 신경증 등의 심리적 문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는 덜 나타나고, 더 높은 자기용인성과 자존감을 보인다(전성희, 2008).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외부의 유혹

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송남옥, 2004). 청소년학과와 범죄학에서 사용되는 자기 통제력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 경향’이라고 정의한다(남현미, 1999).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어려서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형성되고, 이 차이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비행과 범죄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민수홍, 2005).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감과 평정감이 낮으며(Adams & Munro, 1979; Englander, 1984), 아동의 통제결핍 감이 클수록 가출과 같은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이 커진다고 한다. 청소년 비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는 개인 스스로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이석형, 2007). 민수홍(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 괴롭히기 등 일탈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를 실패한 충동조절의 장애나 중독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김선희, 2002). 청소년기에 자기통제력의 부족이 있으면, 이는 다양한 부적응 증상 및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다(남현미,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병리적 행동 억제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

④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개인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워진다(정문자, 김진이, 여종일, 2010).

가출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청소년의 부정적 성격 변인들을 들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성격상의 특징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정과 학교에서의 반복된 좌절로 인한 비규범성과 낮은 신뢰감, 낮은 직업에의 열망, 불안과 방어적 경향, 또한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김향초, 1998; 안창규 외, 1994).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모자라고 있어(Englander, 1984)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방어

적인 특성을 보인다(Levinson & Mezeli, 1970).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개인 문제나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워진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고(현은민, 2001), 낮은 자아존중감이 가출청소년 우울 수준의 가장 강력한 예지표 라고 보고하고 있다(Maxwell, 1992; Smart & Walsh, 1993). 또한 박현선(199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높은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있는 청소년 우울/불안과 같은 내적 문제 성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출청소년은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여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남미애, 1998). 또한, 비행청소년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열등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비행을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Rosenberg & Rosenberg, 1978),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가족변인

① 부모애착

인간이 타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애착이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달시킬 수 있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착이론(Bowlby, 1988)에서는 정서적 유대의 본질과 이러한 유대관계가 자신과 타인 또한 세상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서의 과도기적 상태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벗어나 또래와 애착 관계, 특히 이성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인다(Ainsworth, 1989).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와 강한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함에 따라, 그들의 친한 친구와 애착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Kerns, Tomich & Kim, 2006).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장휘숙, 1997). 서태희(1999)는 부모에의 애착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 집단의 부모애착 점수가 가장 낮으며, 남자 중학생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여자중학생 집단의 순으로 부모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높은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된다(Raja et al., 1992). 부모애착은 자신의 주변과 외부세계에 대한 탐색 행동을 더욱 촉진하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때 지지적인 관계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Kenny & Rice, 1995; Kenny, 1990).

애착유형에 관한 연구(신노라, 안창일, 2004; 장휘숙, 2001; Doyle & Markiewicz, 2005; Kobak & Sceery, 1988)에서는 안정 애착유형이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심리적 적응 수준,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적극적인 인지적 대처양식의 경향이 높았고, 우울과 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성격 요인의 외향성과 호감성을 보유하며, 정서조절의 유연함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그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완충적인 역할(Papini & Roggman, 1992)을 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청소년 대부분의 생활을 차지하는 학교생활에서 교우관계, 학업, 학교생활 적응, 문제행동과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 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박소진, 2006; 송은혜, 2006, 한상희, 2005),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대인 불안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노라, 안창일, 2000). 따라서 부모-자녀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유대로 인해 비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가족 환경임을 알 수 있다.

② 부모감독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성인의 보호 없이 행동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부모감독이 중요하다.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에 대해 학자들이 내린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부모감독은 자녀의 위치, 활동, 적응을 추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련

의 양육 행동이나 자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친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지속해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유진, 1995). 이처럼 부모의 감독은 자녀에 대한 관심의 지표로서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경우 부모감독을 많이 받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각한다(Harter, 1993).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친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적절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출을 줄일 수 있다. 지나치거나 소홀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서찬란, 2005). 지도감독 하는 사람이 혼자인 한 부모가정일 경우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7) 자료에 의하면 일시쉼터의 경우 한 어머니 가정의 비율이 14.1%, 한 아버지가정의 비율이 9%였으나 중장기쉼터의 경우 한 어머니가정은 11.3%, 한 아버지가정은 28.6%로 수치가 역전됨을 보여준다. 즉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서 한 아버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버지 혼자 양육하고 지도, 감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모감독을 볼 때, 부모의 감독은 자녀 생활에 있어 관심이라기보다 자녀의 생활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통제적인 수단으로서 감독하거나 점검을 지속하는 것'으로 정의된다(Read 외, 1995). 자녀들은 부모가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 지각하기도 한다(김선희, 2006 재인용). 부모의 일반적 양육태도와 가출충동 및 가출 행동과의 관계 연구에서 장윤정(1998)은 부모의 일반적 양육태도인 무관심, 이해함, 간섭함이 가출 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가부장적 남아선호 양육경험에서는 가출의 7.3%가 성차별적 양육경험을 했다고 응답했고 6.5%는 경험하지 않았다고 했다. 가출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 거부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일에 있어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심한 체벌이나 잔소리, 혹은 욕설을 하는 경우나 지나치게 과보호하고 성취 지향적이 아닌 경우로 일반청소년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찬란, 2005; 배문조, 전귀연, 2002).

③ 부모지지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지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와 여전히 강한 유대관계를 맺기를 원하며(정옥분, 2003). 이처럼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청소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지지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Cobb, 1976)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맺는데 기초가 되는 정서적, 물리적, 정보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장지우, 2005, 재인용).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고,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주, 신효식, 1997). 부모나 그 밖의 가족, 교사 동료 등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은 물론이고 그들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을 향상해준다(voydanoff & Donnelly, 1999).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발달 및 문제 행동의 감소에도 중요한 요인이다(이경주, 1997). 또한, 부모와 청소년의 친밀한 의사소통은, 부모로부터 따뜻하고 수용적 지지를 원하는 양가적 감정을 갖는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Erikson, 1959).

(3) 사회변인

① 교사애착

교사애착이란 자녀가 부모와 맺은 애착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교사는 학교와 청소년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이자 모델의 역할을 한다.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에게 주요한 심리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 타인 중 가장 중요한 대상은 교사이며, 청소년에게 있어 좋은 모델이 되어 학교생활 적응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더구나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은 부모의 이혼, 맞벌이, 경제적 위기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정이 해체되는 현상을 보여 안전기지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정준희, 2012),

청소년들은 교사와 맺어진 긍정적 애착을 통해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청소년 행동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능력과 애착 관계에서 교사와

안정된 애착의 형성은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 보다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와의 애착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며 학생과 교사와 관계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학업 동기가 향상되고 교사가 학생에게 지지적일수록 학교에 적응은 물론이고 학업성취도 높게 나타났다(문은식, 2003; Hoy & Sweetland, 2001). 교사애착은 교사가 학생의 인지적 측면과 아울러 정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동시에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의 학업 성취, 학교에 대한 태도, 학문적 자아개념, 정신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임규혁, 2008).

청소년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교 관련 변인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학업에 대한 부담감, 교사와의 관계, 선후배나 또래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적게 갖고 있고, 교사들의 권위와 통제를 많이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 대해, 교사에 대한 불만이나 두려움을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지창희, 1987).

② 또래애착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청소년기의 친구와 또래 관계는 성인기에 필수적인 개인의 유능감과 사회 기술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Ingersoll, 1989).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은 사회관계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년배 집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장휘숙, 1997). 또한, 또래 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청소년들이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일이 있으면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는 정서적 지지와 안락한 원천이 되고, 안전한 피난처와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며, 심지어 고통을 분산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Laible, Carlo & Roesch,

2004). 그러나 대부분 비행행위들은 동료들과 같이하는데 이는 비행친구를 가지기 때문이다. 손정자(1998)에 의하면 가출 시 동반자로 친구 한 명이 34.0%, 혼자 25.6%, 친구 두 명 16.3%, 그 이상이 20.9%로 혼자서 가출하는 경우보다 다른 친구와 함께 가출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지지나 충고보다는 또래에 의존하고 또래의 영향에 더 민감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홍미란, 2009). 이러한 친구들은 부모보다 덜 위압적이고 덜 비판적이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준다. 또한, 청소년들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비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영향이 매우 커지며, 청소년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있어 또래애착은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노향희, 2008).

또래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청소년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현순, 2005)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또래와의 애착정도에 따라 정서와 행동 문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총 문제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반사회적 행동이 적고, 또래로부터 배척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비행경향이 높다는 연구(문은영, 윤진, 1994)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또래와의 애착이 날이 갈수록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③ 쉼터만족도

가출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가출청소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의식주를 받게 되어 안정적이다. 황미란(1998)은 가출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들은 가정문제, 진로문제, 학교문제 순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특히 야외활동과 취업알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있으며 청소년쉼터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쉼터 선생님과 관계, 쉼터의 생활규칙, 쉼터생활의 참여 정도, 쉼터 청소년들과의 관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대체로 청소년쉼터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정을 대신하는 양육환경으로서 청소년 적응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일 뿐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처럼 위험요인이 높은 상황에서 청소년쉼터와 같은 서비스는 보호요인 또는 완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유진, 김영희, 2009).

가출청소년이 가출기간에 가장 도움받고 싶었던 부분은 숙식제공에 대한 욕구가 제일 컸으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복지 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의 또래 관계와 쉼터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가출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남미애, 2011). 쉼터가 가출청소년에게 침식을 제공하면서 윤락가로 빠지는 것을 막고 다시 한 번 생활할 기회의 장소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출청소년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의 비가출청소년 또한 숨통이 막히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 부모의 허락을 받고 쉼터에 가서 쉬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1995). 청소년쉼터는 입소 기간 개입방법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로 나뉜다. 이들 모두 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이 쉼터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만족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5.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청소년기는 내적으로, 사회적·인지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며, 외적으로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행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 및 물질 남용 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Buchanan, Eccles, & Becker, 1992; Hinshaw, 1992).

그동안 청소년가출의 선행연구들은 가출의 원인이나 실태, 가출이 비행으로 이르게 되는 경로 등에 대해 주로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김옥숙, 2008; 이희춘, 2013)로 진행됐으나, 최근에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또래 요인, 사회요인 등 생태체계적 요인에 따른 상호복합적인 환경체계 관계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오승환, 2010).

먼저 청소년가출의 개인요인 중 청소년의 불안, 우울, 충동성, 낮은 자기효능감,

부정적 자아개념 등의 정서적 문제는 청소년 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현은민(2000)은 가출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과 통제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해경(2011)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성폭력, 학교중퇴가 예측 변인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폭력 학대피해, 집단괴롭힘피해, 학업문제, 가족 관계문제, 학년이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김향초(2009)는 가출청소년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직업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고, 충동적이어서 통제력이 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가출의 원인을 성격 및 정신 병리적 특성, 자아 관련 측면, 인지적 측면, 생리적 측면에서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가족요인이다. 가족요인은 부모의 자녀 학대와 방임, 가정 해체,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 해당한다(Thompson, Bender, & Kim, 2011). 가출청소년의 부모학대 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들에게 높은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이희춘, 2013). 캐나다에서 347명의 청소년을 대상 개인과 가족 관련 요인들을 규명한 de Man, Dolan, Pelletier, & Reid(1993)는 가출청소년의 특성이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가정 출신이며, 우울하고, 자살생각을 하며, 약물사용 및 절도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지위 또한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가족 내 구성원 간의 갈등 및 가정불화의 위험성을 높여 청소년의 가출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청소년가출에 있어 학교 요인은 가족 요인만큼은 아니지만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여성가족부, 2011). 정혜경, 안옥희(2001)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단순 가출과 상습 가출 집단을 비교한 이은정(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첫 가출 후 경험하는 학교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출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며, 상습적인 가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래요인 또한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출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의 권유 때문에 가출한 비율이 8.5%였고, 친구와 함께 지내고 싶

어서 가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5%, 친구와 놀고 싶어서 노 응답한 비율은 19.6%로 나타나 청소년가출에 있어 친구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출에 있어 친구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 가출에 있어 또래의 영향력은 가출 후 비행으로 연결된다(이은정, 2000; 배문조 외, 2002).

정경은 등(2008)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출청소년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백혜정 등(2009)은 가출청소년이 내재화문제, 즉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체계 내에 들어온다 하여도 사회에 재적응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을 지적하였다. 우울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현저한 감소, 체중이나 식욕의 감소 또는 수면패턴의 변화, 피로, 무가치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살사고나 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신효식(1997)은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개념과 학업성취가 높고, 우울 불안, 비행,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bgländer(1984)의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자신감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남미애(1998)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내재화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강조돼 오고 있다. 가출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내재화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이다(정경은, 문성호, 2008). 또한, 가출청소년과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높으며(이옥실, 2009; 배문조, 전구연, 2001; 현은민, 2000), 김지혜 (2005)는 가출청소년들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규칙위반 행동은 절도, 폭행 무단침입 등의 행동을 보인다. 양봉환(2008)은 대인관계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비행청소년은 미숙한 대인관계능력으로 인해 갈등이 악화되고 지속하면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모습이 나타난

다. 하은혜와 송동호(2005)는 내재화 행동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우울 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사고는 남학생에게 비해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출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서 조운호(2012)는 학교 밖 비행 또래와의 어울림은 청소년 절도, 폭행, 약물남용, 윤락행위 등의 심각한 또래집단 범죄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 비행 또래 친구와 함께하는 가출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품행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비율은 50%~70%에 이를 정도로 높다(Martinez, 2006). 가출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이면서 대인관계에 의심과 불신이 많고,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며,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인다(이세정, 이호준, 2010).

가출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서는 약물, 술 등의 사용 비율이 높고, 재가출과 장기가출이 반복되고, 가출횟수에 따라 성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과 참여를 통한 비행집단과의 부정적 관계 형성과 부당대우 경험이 비행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가출청소년들은 폭력피해, 학업중단의 경험률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경은 외, 2008). 가출청소년은 학교나 가정 등으로부터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는 만큼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기회가 많아진다. 실제 가출청소년 과 청소년쉼터 실태조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0)에서는 가출 전·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조사하였는데, 가출 이전에도 문제행동 경향을 보였지만 가출 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술한 선행연구들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다.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현재의 환경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쉼터에 입소할 때부터 심리적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가출청소년의 대부분은 내재화문제를 가진 동시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개별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이러한 개별연구를 통합하여 살펴본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찾아보기 어렵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에 머무르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청소년쉼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 119개소 가운데 서울, 경기도, 인천에 소재한 48개소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33개소를 설문조사 청소년쉼터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그 곳에 머무르고 있는 만 13세에서 만 18세의 청소년 각 250명이었다. 선정된 청소년쉼터 33개소 가운데 직접방문을 원한 29개소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가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27부였다. 이 중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23부를 제외한 총 22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기초사항은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이 보이듯이 연구대상의 기초사항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59.4%, 여성이 40.6%로 나타났으며, 연령에서는 13세가 1.8%, 14세가 7.6%, 15세가 14.3%, 16세가 16.6%, 17세가 34.4%, 18세가 26.3%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가 있음이 53.6%, 없음이 46.4%로 나타났고, 가정경제 수준에서는 매우 잘 산다가 0.9%, 잘 사는 편이다기 7.1%, 매우 못 산다가 32.1%, 못 사는 편이다가 32.1%, 보통이다가 43.8%로 나타났다.

< 표 III-1 > 연구대상 기초사항

특성	구분	<i>n</i>	%	계(%)
성별	남	133	59.4	224(100.0)
	여	91	40.6	
연령	13세	4	1.8	224(100.0)
	14세	17	7.6	
	15세	32	14.3	
	16세	35	15.6	
	17세	77	34.4	
	18세	59	26.3	
종교	유	120	53.6	224(100.0)
	무	104	46.4	
형제 수	1명	113	50.4	224(100.0)
	2명	75	33.5	
	3명	36	16.1	
가정경제 수준	매우 잘 산다	2	0.9	224(100.0)
	잘 사는 편이다	16	7.1	
	보통이다	98	43.8	
	못 사는 편이다	72	32.1	
	매우 못 산다.	36	16.1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기초사항,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 청소년 정서행동 특성에 대한 10가지 질문지로 구성되었으며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지에 포함된 10가지 질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사항 질문지

기초사항 질문지는 총 5개 항목(성별, 연령, 종교, 형제 수, 가정경제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2) 자기통제력 질문지

자기통제력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정의와 김현숙(1998)의 정의를 참고로 ‘목표달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에 의거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문제행동을 회피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김현숙(1988), 남현미(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만족 추구, 즉각적인 만족 추구 문항만을 선택하였고, 즉각적인 만족추구 문항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자기 통제력의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윤혜진(2012)이 재구성한 총 10개의 문항 중 비슷한 의미의 문항을 제외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 통제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장은 역채점 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 자아존중감 질문지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1,2,4,6,7)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3,5,8,9,10)으로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4) 부모애착 질문지

본 연구에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A)와 Leathers(2000))가 사용한 애착 척도를 참고하여 정선옥(2002)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Likert식 6점 척도로 ‘해당 없음’ 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까지 평가하게 되었으며, 역문항의 경우 반대로 계산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 당시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77로 나타났다.

5) 부모감독 질문지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은 박성수(1994)가 제안한 부모의 가정교육을 측정하는 항목 가운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활과악 및 감독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김준호, 김은경(1995)의 부모감독과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재구성한 남현미(1998)의 부모감독 정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자녀의 외출 시 활동에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4문항과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알아보는 3문항, 평소에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에 일정한 한계와 규칙을 정해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를 이용하여 척도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다. 각 문항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평소에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현미(1998)의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6) 부모지지 질문지

본 연구에서 부모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한 척도 중 가족용을 부모용으로 수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범위로 평점 하게 되었다. 이승미(2007)가 재사용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승미(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다.

7) 교사에착 질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에착 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 STARS)는 김중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한 도구로 김남희(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하위 영역은 신뢰성(4문항), 민감성(4문항), 접근가능성(3문항), 수용성(3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14문항이다. 모든 문항 검사는 Likert식 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에게 안정을 느끼며 애착감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교사 애착 관계는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기반위에 학생들의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김난희(2011)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s 는 .89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92였다.

8) 또래애착 질문지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은 Armsden과 Gernberg(1987)의 부모애착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 기초하여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개정한 IPPA-개정본(IPPA-R)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또래애착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보고용으로, 점수 범위는 12점에서 4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72였다.

9) 컴퓨터만족도 질문지

본 연구에서 컴퓨터만족도는 컴퓨터또래 관계, 선생님과과의 관계, 컴퓨터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도록 구성되었다. 육혜련(2013)과 신지현(2012)연구에서 컴퓨터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가출 후 컴퓨터생활을 통해 가출청소년에게 어떠한 미치느지를 확인해보는 질문으로 '먹고 쉴 수 있어 기분 좋다'등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수정·보완하여 컴퓨터만족도에 대한 문항 수를 Likert식 6 문항으로 '매우 나쁘나다' 1점, '나쁜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좋은 편이다' 4점, '매우 좋다' 5점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신지현(2012)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는 .89였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서 각 지역 쉼터에 공문을 보냈다는 승인 후 본 연구자가 미리 연락한 뒤 직접방문하는 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연구를 위한 설문지 배포를 허락 받은 후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를 총 250부를 작성한 뒤 2015년 1월21부터 3월21일까지(2개월) 실시하였다. 설문에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만 13세~만 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9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4개소에서는 직접방문을 원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설명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여 받았다. 회수한 설문지는 247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22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 쉼터 가출청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K-YSR 척도별로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산출하였다.

둘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임상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K-YSR 척도별로 정상, (준)임상의 빈도, 비율, 순위를 산출하였다.

셋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K-YSR 척도별로 χ^2 -검증 또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와 상관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성별, 연령, 자

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의 예측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은 다수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의 예측과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하는 분석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는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영향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투입은 입력(enter) 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은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의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중다회귀분석인 경우 다중공선성 가정 충족이 추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다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가정만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 전체 분산팽창요인(VIF)가 10이하이고, 공차 한계(Tolerance Limit)는 .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기술통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 기술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공차	VIF
성별	1.00	2.00	1.41	.50	.38	-1.87	.94	1.07
연령	13.00	18.00	16.52	1.32	-.72	-.36	.95	1.05
자기통제력	7.00	35.00	20.04	5.06	.149	.32	.84	1.19
자아존중감	13.00	47.00	30.96	5.58	-.043	1.09	.78	1.29
부모애착	6.00	30.00	15.89	5.45	.301	-.47	.43	2.33
부모감독	10.00	49.00	28.95	8.19	.117	-.31	.75	1.34
부모지지	8.00	40.00	20.12	7.39	.346	-.25	.42	2.36
교사애착	14.00	55.00	32.93	8.29	-.210	.09	.83	1.21
또래애착	20.00	48.00	33.89	5.01	.186	.22	.81	1.24
컴퓨터만족도	10.00	30.00	23.52	4.35	-.353	-.52	.85	1.18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표 IV-1>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

척도	M	SD	평균 순위
불안/우울	57.8	9.4	7
위축/우울	58.7	9.4	4
신체증상	58.3	9.2	6
사회적미성숙	58.6	9.2	5
사고문제	59.2	9.2	3
주의집중문제	57.1	9.4	8
규칙위반	67.7	10.0	1
공격행동	60.5	10.7	2
기타문제	57.3	7.5	—
내재화문제	57.2	12.9	—
외현화문제	66.0	15.0	—
총행동문제	61.8	14.5	—

<표 IV-1>에 보이듯이 정서행동문제 척도는 규칙위반 T점수 평균이 67.6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격행동이 60.478, 사고문제 59.210, 위축/우울 58.705, 사회적 미성숙 58.643, 신체증상 58.250, 불안/우울 58.821, 주의집중 57.14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현화문제 평균은 65.996, 내재화문제 평균은 57.237로 외현화 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행동문제 평균은

61.835이다. 여기에서 평균이 높다는 것은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임상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K-YSR 척도별로 정상과 (준)임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IV-2>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IV-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정상, (준)임상

척도	유형				계(%)	(준)임상 비율 순위
	정상		(준)임상			
	<i>n</i>	%	<i>n</i>	%		
불안/우울	184	82.1	40	17.9	224(100.0)	7
위축/우울	168	75.0	56	25.0	224(100.0)	4
신체증상	173	77.2	51	22.8	224(100.0)	6
사회적 미성숙	168	75.0	56	25.0	224(100.0)	4
사고문제	163	72.8	61	27.2	224(100.0)	3
주의집중문제	186	83.0	38	17.0	224(100.0)	8
규칙위반	86	38.4	138	61.6	224(100.0)	1
공격행동	158	70.5	66	29.5	224(100.0)	2
기타문제	173	77.2	51	22.8	224(100.0)	—
내재화문제	125	55.8	99	44.2	224(100.0)	—
외현화문제	86	38.4	138	61.6	224(100.0)	—
총행동문제	107	47.8	117	52.2	224(100.0)	—

<표 IV-2>에서 보이듯이 (준)임상의 비율을 보면 규칙위반이 61.6%, 공격행동 29.5%, 사고문제 27.2%, 사회적미성숙과 위축/우울함이 각각 25%, 신체증상 22.8%, 불안/우울 17.9%, 주의집중문제 17.0%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출 청소년의 주된 문제가 규칙위반에 기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준)임상 비율은 내재화문제 (44.2%)보다 외현화 문제(61.6%)에서 더 높았다. 총행동문제의 (준)임상 (52.2%) 비율도 50%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3.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χ^2 -검증 또는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관련 변인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11개 척도 중 7개 척도(신체증상,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체증상,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정상집단과 (준)임상집단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연령의 경우 11개 척도 중 5개 척도(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내재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내재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정상집단보다 (준)임상집단의 연령이 높았다.

자기통제력의 경우 11개 척도 중 8개 척도(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집단보다 정상집단의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11개 척도 중 10개 척도(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부모애착의 경우 11개 척도 중 8개 척도(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부모애착이 높았다.

부모감독의 경우 11개 척도 중 4개 척도(위축/우울, 규칙위반, 공격행동,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축/우울, 규칙위반, 공격행동,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부모감독이 높았다.

부모지지의 경우 11개 척도 중 6개 척도(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부모지지가 높았다.

교사애착의 경우 11개 척도 중 5개 척도(주위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주위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교사애착이 높았다.

또래애착의 경우 11개 척도 중 8개 척도(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위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위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또래애착이 높았다.

컴터만족도의 경우 11개 척도 중 5개 척도(위축/우울, 주위집중문제,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위축/우울, 주위집중문제,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에서 (준)임상보다 정상집단의 컴터만족도가 높았다.

< 표 IV-3 >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관련 변인	구분		K-YSR 척도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n=184	n=40	n=168	n=56	n=173	n=51	n=168	n=56	n=163	n=61	n=186	n=38	n=86	n=138	n=158	n=66	n=125	n=99	n=86	n=138	n=107	n=117
성 별	남	n	114	19	104	29	118	15	104	29	109	24	116	17	60	73	99	34	91	42	60	73	75	58
		%	85.7	14.3	78.2	21.8	88.7	11.3	78.2	21.8	82.0	18.0	87.2	12.8	45.1	54.9	74.4	25.6	68.4	31.6	45.1	54.9	56.4	43.6
	여	n	70	21	64	27	55	36	64	27	54	37	70	21	26	65	59	32	34	57	26	65	32	59
		%	76.9	23.1	70.3	29.7	64.4	39.6	70.3	29.7	59.3	40.7	76.9	23.1	28.6	71.4	64.8	35.2	37.4	62.6	28.6	71.4	35.2	64.8
	χ^2		2.847		1.783		24.578***		1.783		13.944***		4.065*		6.250*		2.396		21.133***		6.250*		9.757*	
연 령	M		16.40	17.10	16.37	16.98	16.46	16.75	16.38	16.96	16.44	16.75	16.45	16.87	16.35	16.63	16.7	16.65	16.36	16.73	16.40	16.60	16.33	16.70
	SD		1.322	1.150	1.365	1.053	1.331	1.262	1.325	1.206	1.375	1.135	1.375	.963	1.429	1.239	1.385	1.143	1.346	1.260	1.441	1.235	1.365	1.254
	t		-3.116**		-3.069**		-1.375		-2.945**		-1.615		-1.784		-1.559		-.947		-2.085*		-1.138		-2.135*	
자기 통제력	M		20.125	19.675	20.131	19.785	20.589	18.196	21.544	16.456	20.810	18.000	20.914	15.789	22.593	18.457	21.544	16.455	20.368	19.636	23.012	18.196	21.794	18.444
	SD		5.072	5.050	4.776	5.870	4.998	4.875	4.883	5.226	4.758	5.310	4.715	4.557	4.699	4.622	4.590	4.290	4.812	5.354	4.367	4.569	4.742	4.824
	T		.509		.441		3.022**		3.027**		3.810***		6.139***		6.473***		7.710***		1.075		7.803***		5.234***	
자아 존중감	M		32.125	25.575	32.381	26.679	31.439	29.314	32.071	27.607	31.834	28.607	31.677	27.421	33.140	29.594	32.051	28.333	33.304	27.990	33.302	29.493	33.991	28.180
	SD		5.014	4.877	4.609	5.306	5.785	4.479	5.396	4.743	5.535	5.021	5.481	4.677	4.600	5.714	5.236	5.534	4.778	5.098	4.602	5.647	5.371	4.746
	t		7.524***		7.377		2.418*		5.519***		3.982***		4.465***		2.768**		2.417*		8.025***		5.260***		9.108***	
부모 애착	M		16.321	13.925	16.500	14.071	16.277	14.588	16.512	14.036	16.257	14.918	15.849	16.105	17.151	15.109	16.456	14.545	16.968	14.535	17.035	15.182	17.131	14.761
	SD		5.252	5.967	5.139	5.981	5.613	4.678	5.329	5.437	5.367	5.596	5.371	5.895	5.568	5.245	5.154	5.928	5.310	5.348	5.624	5.235	5.371	5.296
	t		2.550*		2.936**		1.957		2.996**		1.644		-.263		2.768**		2.417*		3.395***		2.505*		3.323***	

<표 IV- 3> 계속됨

관 련 변 인	구 분	K-YSR 척도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n=184	n=40	n=168	n=56	n=173	n=51	n=168	n=56	n=163	n=61	n=186	n=38	n=86	n=138	n=158	n=66	n=125	n=99	n=86	n=138	n=107	n=117
부 모 감 독	M	28.793	29.675	29.607	26.982	28.971	28.882	29.071	28.589	29.362	27.852	29.161	27.921	31.035	27.652	29.791	26.939	29.856	27.808	30.023	28.232	30.327	27.692
	SD	8.237	8.030	8.342	7.443	7.944	9.057	8.416	7.529	8.358	7.681	8.112	8.594	8.591	7.678	8.194	7.880	7.933	8.404	8.684	7.824	8.129	8.066
	t	-.616		2.093 *		.068		.381		1.229		.850		3.063 **		2.401 *		1.869		1.552		2.432 *	
부 모 지 지	M	20.647	17.675	20.673	18.466	20.670	18.235	21.065	17.268	20.589	18.852	20.296	19.237	21.139	19.478	20.734	18.636	21.648	18.182	21.384	19.326	22.047	18.350
	SD	7.420	6.818	7.575	6.586	7.658	6.091	7.479	6.366	7.707	6.353	7.584	6.369	7.949	6.973	7.461	7.053	7.644	6.600	8.583	6.445	7.774	6.570
	t	2.328 *		1.965 *		2.084		3.409 ***		1.571		.804		1.643		1.949		3.577 ***		2.041 *		3.854 ***	
교 사 애 착	M	33.152	31.900	33.327	31.732	32.717	33.647	33.095	32.429	33.254	32.082	33.699	29.158	34.651	31.855	34.430	29.333	33.456	32.263	35.384	31.399	34.383	31.598
	SD	8.286	8.311	8.539	7.419	8.208	8.589	8.472	7.753	7.961	9.115	8.020	8.638	7.948	8.339	7.223	9.536	7.836	8.817	7.795	8.241	7.371	8.866
	t	.866		1.249		-.704		.521		.935		3.139 **		2.485 **		4.364 ***		1.071		3.593 ***		2.543 *	
또 래 애 착	M	34.136	33.784	34.732	31.357	33.919	33.784	34.607	31.732	34.601	31.983	34.581	30.500	35.512	32.877	34.721	31.894	34.664	32.909	35.605	32.819	35.430	32.479
	SD	5.132	4.271	4.864	4.602	5.031	4.981	4.920	4.681	4.940	4.720	4.760	4.870	4.796	4.886	4.708	5.177	5.040	4.817	4.888	4.797	4.620	4.953
	t	1.592		4.556		.168		3.832 ***		3.573 ***		4.797 ***		3.953 ***		3.978 ***		2.639 **		4.197 ***		4.600 ***	
쉽 터 만 족 도	M	23.668	22.850	23.982	22.143	23.502	23.588	23.679	23.054	23.705	23.033	23.903	21.658	23.709	23.406	24.044	22.273	24.024	22.889	24.244	23.072	24.168	22.932
	SD	4.210	4.954	4.123	4.750	4.356	4.378	4.425	4.123	4.295	4.498	4.332	3.995	4.005	4.564	4.072	4.761	4.242	4.426	4.090	4.462	4.027	4.565
	t	1.079		2.591 **		-.123		.931		1.030		2.948 **		.507		2.821 **		1.951		1.973 *		2.142 *	

* $p < .05$; ** $p < .01$; *** $p < .001$.

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상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안/우울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6개 변인(성별, 연령,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지지, 또래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불안/우울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위축/우울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6개인(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지지, 연령, 부모애착, 성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위축/우울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신체증상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5개 변인(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자기통제력, 부모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신체증상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미성숙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7개 변인(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자기통제력과, 부모지지, 부모애착, 연령, 성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회적 미성숙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고문제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7개 변인(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성별, 또래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또래애착

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사고문제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4>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분석

구분	성별 ¹⁾	연령	자기 통제력	자아 존중감	부모 애착	부모 감독	부모 지지	교사 애착	또래 애착	쉼터 만족도	
종속 변인	불안/우울	.223 **	.248 **	-.093	-.566 **	-.169 *	-.035	-.185 **	-.097	-.212 **	-.087
	위축/우울	.151 *	.278 **	-.017	-.515 **	-.272 **	-.130	-.282 **	-.111	-.328 **	-.120
	신체증상	.324 **	.108	-.194 **	-.292 **	-.169 *	-.068	-.205 **	-.039	-.061	-.080
	사회적 미성숙	.164 *	.169 *	-.310 **	-.416 **	-.195 **	-.098	-.213 **	-.021	-.358 **	-.109
	사고문제	.298 **	.178 **	-.301 **	-.391 **	-.133 *	-.104	-.146 *	-.110	-.269 **	-.060
	주의집중 문제	.093	.113	-.403	-.348 **	-.059	-.055	-.115	-.203 **	-.313 **	-.195 **
	규칙위반	.246 **	.126	-.468 **	-.403 **	-.169 *	-.215 **	-.129	-.295 **	-.244 **	-.122
	공격행동	.186 **	.075	-.576 **	-.357 **	-.127	-.196 **	-.107	-.333 **	-.287 **	-.218 **
	내재화 문제	.221 **	.260 **	-.117	-.540 **	-.248 **	-.095	-.255 **	-.107	-.260 **	-.117
	외현화 문제	.271 **	.096	-.529 **	-.387 **	-.158 *	-.203 **	-.126	-.335 **	-.288 **	-.169 *
	총행동 문제	.287 **	.215 **	-.412 **	-.522 **	-.205 **	-.164 *	-.211 **	-.223 **	-.331 **	-.168 *
독립 변인	성별	1	.038	-.187 **	-.055	-.134 *	-.033	-.122	-.100	.020	-.076
	연령	-	1	.076	-.063	-.109	.001	-.060	.022	-.064	-.139 *
	자기 통제력	-	-	1	.091	.078	.127	-.011	.275 **	.206 **	.106
	자아 존중감	-	-	-	1	.173 **	.202 **	.300 **	.213 **	.319 **	.214 **
	부모애착	-	-	-	-	1	.390 **	.729 **	.077	.051	.132 *
	부모감독	-	-	-	-	-	1	.340 **	.235 **	.237 **	.230 **
	부모지지	-	-	-	-	-	-	1	.082	.040	.148 *
	교사애착	-	-	-	-	-	-	-	1	.109	.249 **
	또래애착	-	-	-	-	-	-	-	-	1	.210 **
	쉼터 만족도	-	-	-	-	-	-	-	-	-	1

* $p < .05$; ** $p < .01$. ¹⁾부호: 남 0, 여 1.

주의집중문제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4개 변인(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교사애착, 컴퓨터 만족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컴퓨터 만족도가 낮을수록, 주의집중문제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규칙위반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7개 변인(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성별, 또래애착, 부모감독, 부모애착)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규칙위반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공격행동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7개 변인(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 부모감독, 성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컴퓨터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격행동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내재화문제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6개 변인(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성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내재화문제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외현화문제의 경우 10개의 관련변인 중 8개 변인(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성별, 부모감독, 컴퓨터만족도, 부모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컴퓨터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총행동문제의 경우 10개 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과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가 낮을수록 총행동문제 점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각 척도별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5>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constant (표준오차)	R ²	F
불안/ 우울	성별	-3.475	1.030	-.182	-3.817	61.573 (9.150)	.419	15.360***
	연령	1.458	.382	.205	3.817***			
	자기통제력	-.050	.106	-.027	-.475			
	자아존중감	-.938	.100	-.557	-9.397***			
	부모애착	-.187	.137	-.108	-1.359			
	부모감독	.122	.069	.106	1.761			
	부모지지	.063	.102	.050	.621			
	교사애착	.012	.065	.011	.189			
	또래애착	-.105	.109	-.056	-.968			
	쉼터만족도	.148	.122	.069	1.214			
위축/ 우울	성별	-2.225	1.047	-.116	-2.126*	73.880 (9.295)	.402	14.340***
	연령	1.552	.388	.217	4.000***			
	자기통제력	.141	.107	-.076	1.309			
	자아존중감	-.703	.101	-.417	-6.933***			
	부모애착	-.286	.140	-.166	-2.047*			
	부모감독	.076	.070	.066	1.079			
	부모지지	-.038	.104	-.030	-.366			
	교사애착	-.033	.066	-.029	-.499			
	또래애착	-.404	.111	-.215	-3.655***			
	쉼터만족도	.138	.124	.064	1.111			
신체 증상	성별	-5.068	1.163	-.271	-4.338***	53.924 (10.375)	.220	6.000***
	연령	.615	.433	.088	1.420			
	자기통제력	-.294	.120	-.162	-2.451*			
	자아존중감	-.434	.113	-.263	-3.836***			
	부모애착	-.017	.156	-.010	-.111			
	부모감독	.022	.079	.019	.277			
	부모지지	-.123	.116	-.099	-1.061			
	교사애착	.094	.074	.084	1.269			
	또래애착	.084	.123	.046	.683			
	쉼터만족도	.014	.138	.007	.105			

<표 IV-5> 계속됨

종속 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constant (표준오차)	<i>R</i> ²	<i>F</i>
사회적 미성숙	성별	-1.771	1.068	-.094	-1.658	57.353 (9.481)	.355	11.699***
	연령	.992	.396	.142	2.506*			
	자기통제력	-.503	.110	-.276	-4.596***			
	자이존중감	-.527	.103	-.318	-5.097***			
	부모애착	-.091	.142	-.054	-.640			
	부모감독	.078	.072	.069	1.085			
	부모지지	-.116	.106	-.092	-1.094			
	교사애착	.157	.067	.141	2.323*			
	또래애착	-.414	.113	-.224	-3.667***			
	쉽터만족도	.068	.126	.032	.538			
사고 문제	성별	-4.487	1.079	-.241	-4.160***	525.641 (9.557)	.329	10.462
	연령	1.169	.400	.168	2.924**			
	자기통제력	-.420	.111	-.232	-3.794***			
	자이존중감	-.533	.104	-.325	-5.098***			
	부모애착	-.004	.144	-.002	-.027			
	부모감독	.012	.073	.010	.161			
	부모지지	-.031	.107	-.025	-.289			
	교사애착	.037	.068	.033	.538			
	또래애착	-.252	.114	-.138	-2.210*			
	쉽터만족도	.207	.128	.098	1.618			
주의집중 문제	성별	-.052	1.114	-.003	-.047	54.353 (9.889)	.315	9.787***
	연령	.776	.413	.109	1.880			
	자기통제력	-.663	.114	-.359	-5.804***			
	자이존중감	-.390	.108	-.233	-3.615***			
	부모애착	.157	.149	.091	1.058			
	부모감독	.124	.075	.109	1.661			
	부모지지	-.159	.110	-.126	-1.446			
	교사애착	-.052	.070	-.046	-.737			
	또래애착	-.308	.118	-.165	-2.618**			
	쉽터만족도	-.137	.132	-.064	-1.040			

<표 IV-5> 계속됨

종속 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constant (표준오차)	<i>R</i> ²	<i>F</i>
규칙위반	성별	-2.933	1.106	-.144	-2.653**	60.463 (9.819)	.411	14.844***
	연령	1.019	.410	.134	2.487*			
	자기통제력	-.743	.113	-.375	-6.547***			
	자아존중감	-.561	.107	-.324	-5.425***			
	부모애착	-.121	.147	-.066	-.818			
	부모감독	-.090	.074	-.073	-1.206			
	부모지지	.085	.109	.063	.776			
	교사애착	-.130	.070	-.108	-1.863			
	또래애착	-.084	.117	-.042	-.715			
	쉽터만족도	.159	.131	.069	1.213			
공격행동	성별	-1.370	1.133	-.63	-1.210	55.123 (10.058)	.464	18.409***
	연령	.705	.420	.086	1.679			
	자기통제력	-1.047	.116	-.493	-9.015***			
	자아존중감	-.461	.110	-.239	-4.204***			
	부모애착	-.005	.151	-.002	-.032			
	부모감독	-.035	.076	-.027	-.466			
	부모지지	.004	.112	.003	.038			
	교사애착	-.151	.072	-.116	-2.109*			
	또래애착	-.163	.120	-.076	-1.364			
	쉽터만족도	-.114	.134	-.046	-.864			
내재화문제	성별	-4.439	1.431	-.169	-3.101**	65.519 (12.710)	.409	14.718***
	연령	2.060	.530	.210	3.884***			
	자기통제력	-.105	.147	-.041	-.718			
	자아존중감	-1.118	.139	-.482	-8.066***			
	부모애착	-.355	.191	-.150	-1.860			
	부모감독	.131	.096	.083	1.363			
	부모지지	-.003	.142	-.002	-.021			
	교사애착	.014	.090	.009	.160			
	또래애착	-.289	.151	-.112	-1.909			
	쉽터만족도	.162	.170	.055	.956			

<표 IV-5> 계속됨

종속 변인	독립변인	<i>B</i>	<i>SE</i>	β	<i>t</i>	constant (표준오차)	<i>R</i> ²	<i>F</i>
외현화 문제	성별	-4.906	1.588	-.161	-3.090**	63.139 (14.097)	.460	18.155***
	연령	1.165	.588	.102	1.979*			
	자기통제력	-1.247	.163	-.420	-7.659***			
	자아존중감	-.744	.154	-.276	-4.839***			
	부모애착	-.120	.212	-.044	-.567			
	부모감독	-.064	.107	-.035	-.602			
	부모지지	.067	.157	.033	.429			
	교사애착	-.243	.100	-.134	-2.421*			
	도래애착	-.274	.168	-.091	-1.633			
	쉽터만족도	.079	.188	.023	.422			
총행동문제	성별	-5.588	1.470	-.190	-3.803***	50.016 (13.049)	.502	21.490***
	연령	2.215	.545	.196	3.952***			
	자기통제력	-.925	.151	-.323	-6.140***			
	자아존중감	-1.088	.142	-.419	-7.645***			
	부모애착	-.120	.196	-.045	-.615			
	부모감독	.040	.099	.023	.408			
	부모지지	-.053	.145	-.027	-.365			
	교사애착	-.043	.093	-.025	-.468			
	도래애착	-.375	.155	-.129	-2.402*			
	쉽터만족도	.120	.174	.036	.689			

* $p < .05$; ** $p < .01$; *** $p < .001$.

불안/우울의 경우 모형적합도($F=15.36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불안/우울을 설명하는 정도(R^2)가 .419로 약 42%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들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우울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축/우울의 경우 모형적합도($F=14.34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위축/우울을 설명하는 정도(R^2)가 .402로 약 40%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들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성별, 부모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위축/우울문제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미 변수로 투입된 성별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위축/우울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체증상의 경우 모형적합도($F=6.000$,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신체증상을 설명하는 정도(R^2)가 .220로 약 22%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성별,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정서행동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여학생에게 신체증상 영향이 유의함을 나타낸다.

사회적미성숙의 경우 모형적합도($F=11.69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신체증상을 설명하는 정도(R^2)가 .355로 약 35%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들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 연령,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정적 또는 부적으로 정서행동 사회적미성숙 문제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고문제의 경우 모형적합도($F=10.46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신체증상을 설명하는 정도(R^2)가 .329로 약 33%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애착이 정서행동 사고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주의집중문제의 경우 모형적합도($F=9.78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주의집중문제를 설명하는 정도(R^2)가 .315로 약 31%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규칙위반의 경우 모형적합도($F=14.84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규칙위반을 설명하는 정도(R^2)가 .411로 약 41%였다. 구

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은 정서행동 규칙위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격행동의 경우 모형적합도($F=18.40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정도(R^2)가 .464로 약 46%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에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에착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과 교사에착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문제의 경우 모형적합도($F=14.718$,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내재화문제를 설명하는 정도(R^2)가 .409로 약 41%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추정치를 살펴보면,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정서행동 내재화문제는 연령과 자아존중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외현화문제의 경우 모형적합도($F=18.15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외현화문제를 설명하는 정도(R^2)가 .460로 약 46%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교사에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내재화문제와 비교할 때, 자기통제력과 교사에착의 영향력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관련된 변인은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재화문제보다 설명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총행동문제의 경우 모형적합도($F=21.40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10개의 관련변인들이 총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정도(R^2)는 .502로 약 50%였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에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V. 논 의

1.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K-YSR 척도별로 평균, 표준편차, 순위를 산출하였는데(<표 IV-1> 참조), 그 결과를 8개 하위 증후군(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로 나누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8개 하위증후군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는 불안/우울 평균이 7.82, 위축/우울 58.71, 신체증상 58.25, 사회적미성숙 58.64, 사고문제 59.21, 주의집중문제 57.14, 규칙위반 67.69, 공격행동 60.48이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2012)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표 V-1>과 같다. <표 V-1>에 보이듯이,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본 연구의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쉼터 가출청소년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쉼터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이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 외 보호청소년의 적응을 연구한 강현아 외(2012)는 양육자 모니터링이 가정 외 보호 청소년 적응의 부정적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문지윤 외(2011)도 시설보호 아동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시설아동의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는 쉼터 가출청소년이 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인식할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소년쉼터의 만족도는 쉼터 가출청소년이 긍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함이나, 비행,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에서 일반청소년과 쉼터 가출청소년의 차이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규칙위반과 공격적인 행동문제가 높은 쉼터 가출청소년 중 타 고난 자극추구 성향 기질로 인한 정서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 억제능력을 향상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일반청소년의 차이점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추후 많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1> 일반청소년과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비교

척도	일반청소년(N=443) (이수연, 2012) ¹⁾		쉼터 가출청소년(N=224) (본 연구)	
	M	SD	M	SD
불안/우울	54.48	6.36	57.82	9.40
위축/우울	55.84	7.47	58.71	9.41
신체증상	54.16	5.75	58.25	9.19
사회적 미성숙	53.96	5.63	58.64	9.24
사고문제	55.10	6.11	59.21	9.15
주의집중문제	54.41	6.42	57.14	9.35
규칙위반	54.75	6.46	67.69	10.01
공격행동	53.87	6.05	60.48	10.75
내재화문제	51.48	10.47	57.24	12.94
외현화문제	49.95	11.37	65.10	15.02
총행동문제	51.08	10.61	61.84	14.48

¹⁾ 출처: 이수연 (2012).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간의 평가차이 및 관련변인. (p. 52)

다음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중 외현화문제가 내재화문제보다 높은 정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2012)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표 V-1>와 같다. <표 V-1>에 보이듯이 외현화문제 하위증후군 중 규칙위반이 가장 높은 정도로 임상 수준을 보였으며, 공격행동은 (준)임상 수준으로 보였다. 내재화문제 하위증후군 중 위축/우울이 가장 높은 정도를 보였다. 그 정도 차이가 가장 큰 하위증후군은 외현화문제의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다. 특히 두 집단의 내재화

보면 <표 V-2>와 같다. <표 V-2>에 보이듯이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과 컴퓨터 가출청소년 (준)임상유형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준)임상유형이 더 큰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규칙위반의 (준)임상유형(61.6%)이 일반청소년의 규칙위반 (준)임상유형(7.3%)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공격행동과 사고문제, 사회적미성숙의 (준)임상유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규칙위반의 경우 다른 하위증후군과는 달리 전체응답 중 절반이 넘는 61.6%가 (준)임상유형을 보였다. 가출청소년의 주된 문제가 규칙위반에 기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컴퓨터 가출청소년이 일반청소년 보다 정서행동문제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출청소년의 우울과 품행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비율은 50%-70%에 이를 정도로 높다(Martinez, 2006). 이세정과 이호준(2010)의 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이면서 대인관계에 의심과 불신이 많고,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며,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였다.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이 높다고 하였으며(이옥실, 2009; 최혜정, 김선숙, 2009; 배문조, 전구연, 2001; 현은민, 2000), 내재화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이며(정경호와 문성호, 2008),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의 행동이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범법행위 등에 의한 것으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결과로 간주한다. 김지혜(2005)는 가출 청소년들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규칙위반행동은 절도, 폭행 무단침입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뒷받침이 된다. 그러나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일반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의 차이점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추후 많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준)임상유형은 44.2%와 외현화문제 (준)임상유형은 6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2012)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표 V-2>와 같다. <표 V-2>에 보이듯이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과 컴퓨터 가출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서 차이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위축과 불안/우울 등의 척도가 이수연(2012)보다 높은 것은 컴퓨터 가출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과 정서

적 위축을 의미한다. 즉, 컴퓨터 가출청소년에서 보통의 예상처럼 비행, 공격성 유형 등의 외현화 문제이외에 내재화 문제들도 동반하고 있음(곽영숙, 이영우, 1988)과 함께 위축, 신체화, 불안/우울 문제들도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치료방법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재화문제에 대한 정신치료와 함께 외현화문제에 대한 구조적 치료적 접근과 행동 치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는 내재화문제보다는 외현화문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 일반청소년과 컴퓨터 가출청소년 정서행동문제의 (준)임상유형 비교

척 도	일반청소년(N=443) (이수연, 2012) ¹⁾				컴퓨터 가출청소년(N=224) (본 연구)			
	정상		(준)임상		정상		(준)임상	
	n	%	n	%	n	%	n	%
불안/우울	412	93.0	31	7.0	184	82.1	40	17.9
위축/우울	383	86.5	60	13.5	168	75.0	56	25.0
신체증상	412	93.0	31	7.0	173	77.2	51	22.8
사회적미성숙	414	93.5	29	6.6	168	75.0	56	25.0
사고문제	409	92.3	55	7.6	163	72.8	61	27.2
주의집중문제	411	92.8	32	7.3	186	83.0	38	17.0
규칙위반	411	92.8	32	7.3	86	38.4	138	61.6
공격행동	414	93.5	29	6.5	158	70.5	66	29.5
내재화문제	346	78.1	97	12.6	125	55.8	99	44.2
외현화문제	362	81.7	81	18.3	86	38.4	138	61.6
총행동문제	353	79.7	90	20.3	107	47.8	117	52.2

¹⁾ 수정발췌: 이수연 (2012).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간의 평가차이 및 관련변인. (p. 52)

마지막으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총행동문제의 (준)임상유형은 52.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2012)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표 V-2>와 같다. <표 V-2>에 보이듯이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과 컴퓨터 가출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준)임상유형이 더 큰 비율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정서행동문제의 내재화문제와 외현

화문제를 연구하여 조사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컴퓨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가 심각함으로 추후 많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χ^2 -검증 또는 t -검증을 하였다 (<표 IV-4> 참조). 그 결과를 10개 관련변인별로 나누어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성별에 차이는 χ^2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증상,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문제 그리고 총행동문제에서 정상집단과 (준)임상집단의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정서행동문제는 중2부터 고2에 걸쳐 문제행동과 관련된 비행경험이 더 많으나 여학생은 변화가 없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화행동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이정님(2002)의 연구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이 다르므로 컴퓨터 가출청소년과 성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차이 분석은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문제, 총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행동문제는 (준)임상의 평균이 정상보다 높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 결과는 연령 집단에 따라 정서행동문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비교를 한 문재우(2012)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가출충동이 더 높은 반면 가출경험은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 일수록 가출경험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가족, 사회, 또래집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출충동과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는 우리사회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위한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하은혜와 송동호(2005)는 내재화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우울 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사고는 남학생에게 비해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의 관계에서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일찍 가출한 청소년이 비행에 더 깊이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자기통제력 분석은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규칙위반, 외현화문제, 충동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행동문제 평균은 (준)임상의 평균이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준)임상인 가출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비가출청소년과 비교해볼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 통제감과 평정감이 낮으며(Adams & Munro, 1979; Englander, 1984), 아동의 통제결핍감이 클수록 가출과 같은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이 커진다고 하였다. 김향초(2009)의 연구에서도 가출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낮고 충동적이어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보다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것은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가정을 떠나 사회로 나아갈 때 필요한 능력이자 타인과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방향을 연구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분석은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충동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행동문제는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이면 자아존중감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일반청소년 또래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으며(남미애, 1998)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개인문제나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워진다(정문자, 김진이, 여종일, 2012).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와의 갈등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을 통한 부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숨겨진 갈등을 자체로는 지각하기 어려워서인지 혹은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아 표출 갈등과 함께 표출될 때어야 숨겨진 갈등을 지각하게 되기 때문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 따라서 숨겨진 갈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부모애착 차이는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미성숙,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이면 부모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박소진, 2006; 송은혜, 2006, 한상희, 2005)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대인불안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노라, 안창일, 2000). 이처럼 부모-자녀에 대한 높은 애착은 청소년이 심리적 유대로 인해 비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가족 환경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안정된 애착은 어릴 때부터 중요하다.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부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자녀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애착은 정서적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안정된 애착형성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쉼터 가출청소년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제한적이어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부모감독 차이는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위축/우울, 규칙위반, 공격행동, 총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행동문제는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이면 부모감독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부모감독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의 관심이 높으면 정서행동문제가 정상 수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찬란(2005)의 연구에서 적절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나치거나 소홀한 지도감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서찬란, 2005: 배문조, 권기연, 2002) 거꾸로 심한 체벌이나 잔소리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을 부모가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다. 가정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시간보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또는 또래집단과의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부모감독이라는 보다는 사회 또는 학교 감독이라는 용어가 더욱 현실적이라 본다. 이는 청소년들로부터 성적순으로 출서기를 강요하는 현실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감독을 해야 가장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부모지지 평균차이 또한 t -검증을 하였는데,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정상 집단의 부모지지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경주, 신효식(1997)은 부모의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음주, 비행 등의 부적응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개념과 학업 성취가 높고, 우울/불안, 비행,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발달 및 문제행동의 감소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쉼터 가출청소년 정서행동문제와 부모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제한적이어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덟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교사애착 분석은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주의집중 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총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 집단에서 교사애착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지창희(1987)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보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적게 갖고 있고, 교사들의 권위와 통제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심리

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의 학생의 관계는 학업의 성취, 주의집중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면서 교사와 학생관계는 소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으로 학교에서 교사에 대항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칙이나 성적관계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을 지지해주고 들어주면서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교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홉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또래애착 분석은 t -검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충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이면 또래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순(2005)의 연구에서 또래와의 애착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문제 충행동문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문은영과 윤진(1994)은 또래로부터 배척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비행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에게 또래 집단은 매우 중요한데, 이 집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친밀하고 안정적인 또래관계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 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제생활을 하면서 자식과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질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학교와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쉼터만족도 분석은 t -검증을 하였는데, 위축/우울, 주의집중 문제,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충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상 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인 청소년의 쉼터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미애(2011)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폭행 절도와 같은 비행과 자살 시도나 자살 생각과 같은 행동 등은 쉼터 입소 후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청소년컴퓨터 입소 가출청소년들이 컴퓨터의 생활환경과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익숙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이버상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상관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척도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불안/우울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 연령, 성별, 또래애착, 부모지지, 부모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불안/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이 비가출청소년보다 우울, 불안, 심적 혼란 및 충동성이 더 높고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안창규 등, 1995; 지창희, 1987; Englander, 1984; Rohr, 1996)고 하였고, 현은민(2000)은 청소년의 불안, 우울, 충동성, 낮은 자기효능감, 부정적 자아개념 등의 정서적 문제는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부모 학대경험과 우울과의 상관관계에서,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들에게 높은 우울을 경험 하게 한다. 민성길 외(199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에게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파괴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여학생에게는 우울/불안이 많이 나타났다. 정경은 등(2008)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출청소년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이는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시설에서 지내게 되는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불안은 청소년기의 혼란 정신과적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가 심하고 내적인 갈등과 밀접한 양상

을 보이는 신경증적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임상적으로는 강박신경증이나 공포증 또는 회피 장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은 아동기 우울과는 달리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며 점차 성인 우울증의 임상특성과 유사한 경과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위축/우울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지지, 연령, 부모애착, 성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위축/우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쉼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축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소 찾아볼 수 없지만 가출청소년들이 사람이나 사회적 상황과의 접근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안으로 숨어드는 특성이 있어 무기력함과 자아존중감이 낮고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적절한 상담 및 교육적 프로그램의 적용을 확대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신체증상의 상관관계는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자기통제력, 부모애착의 순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신체증상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신체증상의 상관관계의 선행연구는 다소 찾아볼 수 없지만 쉼터 가출청소년의 신체증상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요인으로 추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사회적미성숙 상관관계수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자기통제력과, 부모지지, 부모애착, 연령, 성별의 순이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회적미성숙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미성숙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또래관계를 힘들어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응하기를 힘들어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에서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부정적 이미지로 유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은 많은 청소년들이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

한 사회적 편견이 사회 참여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의지를 꺾을 수도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사고문제와의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성별, 또래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순위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사고문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사고문제를 가진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상대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또래나 학교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쉼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다소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문제는 청소년 자신보다 주변환경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청소년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변환경 특히 가정, 학교, 또래 집단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애착과 지지와 자아존중감 제고 등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주의집중문제와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교사애착, 쉼터만족도 순위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쉼터만족도가 낮을수록, 주의집중문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서행동문제에 주의집중문제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의 영향을 받으며(이세정, 이호준, 2010), 가출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이면서 대인관계에 의심이 많고,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면서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주의집중에 관한 정의와 개념은 학자마다 달리하고 있다. 주의집중의 선택은 부적절한 것으로부터 주의를 분리하는 것으로서, 주의집중 장애를 지닌 개인은 자극선택, 감각 간 선택, 다감각간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의력을 이동시키거나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주의집중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관련기관에 이르기까지 주의집중이 가능하도록 전력해야 한다.

일곱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규칙위반과 상관관계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성별, 또래애착, 부모감독, 부모애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또래

애착이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규칙위반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들의 성격상의 특징으로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지나치게 충동적이어서 통제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김향초 1998, 안창규 외, 1994). 쉼터 가출청소년에서 규칙위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칙위반은 바로 잡을 수 있고 또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은 서서히 준비해야 하고 당장의 결과보다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규칙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문제는 감소하리라 본다.

여덟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공격행동과 상관관계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 부모감독, 성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쉼터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격행동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비행청소년은 미숙한 대인관계능력으로 인해 갈등이 악화하고 지속하면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고 그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는 모습이 나타난다(양봉환, 2008). 민수홍(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 괴롭히기 등 일탈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조학래(2004)는 가출청소년의 전후의 비행행동경험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비행친구와의 접촉경험, 공격성, 충동성이 가출 징후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행동의 경향은 청소년이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청소년의 공격성은 청소년이 처한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개인차에 따라 다르고 공격성 자체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성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은 청소년문제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아홉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내재화문제와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자아존중

감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지지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내화문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백혜정 외(2009)는 가출청소년이 내재화문제, 즉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호체계 내에 들어온다 하여도 사회에 재적응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은혜와 송동호(2005)는 내재화 행동문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여학생에게 급격히 증가하고 우울 정서의 특성과 부정적 사고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여학생의 경우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과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남학생보다 높으며, 남학생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여학생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열 번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외현화문제와 상관관계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성별, 부모감독, 쉼터만족도, 부모애착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감독이 낮을수록, 쉼터만족도가 낮을수록,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의 외현화문제와 상관관계는 조운호(2012)의 연구는 학교 밖 비행 또래와 어울림은 청소년 절도, 폭행과 같은 심각한 또래집단 범죄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충동적이며 인내하기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현화문제 해결을 위해 쉼터에서 자립과 자활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쉼터의 관련자들은 가출청소년의 지원에 있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이나 취업, 자립 등의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또 다른 좌절감과 실패감을 줄 수 있다. 즉, 취업이나 학력증진 등 자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성급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청소년 스스로 동기가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총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수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애착, 성별, 교사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쉼터만족도, 부모감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남학생보다 여

학생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가 낮을수록 충행동문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정서행동문제 중 주의집중문제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율이 높으며, 관련변인으로는 부모감독, 교사애착, 컴퓨터만족도 간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oberts(1982)는 낮은 충동억제, 신경증, 자기애적 인격장애, 부정적 자아개념에서 가출이 비롯된다고 보고하고, 특히 부정적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가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행과 부적응 행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계를 알아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에서 정서행동문제 가장 높게 나타나 정서행동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기질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연구해 보았으나,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의 후속적인 연구나 비교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K-YSR 척도별로 중다회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있다. 각 척도별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불안/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우울 문제를 높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령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이 높다는 것은 일회성 가출이 아닌 재가출로 이어진다(이상준, 2011).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복 가출 내지는 만성가출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컴퓨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김향초, 1998)에서도 대상자들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컴퓨터 및 청소년을 위한 대

처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은 더 훌륭한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실행되는데 이러한 예측과 대치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국가가 전면에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위축/우울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는 연령,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성별, 부모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위축/우울 문제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미 변수로 투입된 성별 영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일수록 위축/우울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쉼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축행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래와의 애착연구(김현순, 2005)에서는 또래애착 정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총행동문제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위축/우울문제가 높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다. 청소년가출이 자살, 임신, 성매매, 약물남용, 폭력 등 사회적 폭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사회적, 교육적 개입이 시급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치유프로그램의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신체증상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불안/우울이나 위축/우울에 대한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성별,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정서행동문제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여학생에게 신체증상 영향이 유의함을 나타낸다. 청소년 가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의 성차 이해정(2011)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성폭력, 학교중퇴가 예측변인이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폭력 학대피해, 집단괴롭힘피해, 학업문제, 가족관계문제, 학년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청소년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제기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결과들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와 감정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프로그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교육과 접근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사회적미성숙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 연령,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정적 또는 부적으로 정서행동 사회적미성숙 문제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자천(2008)은 가족 외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대처 기술의 부족, 외부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 성격, 무기력감과 공허한 마음 등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은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다. 특히 공격적이고 무기력감과 공허한 마음은 청소년의 일탈과 자살로도 연결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활동을 포함하여 교육한다면 보다 더욱 효과적이라 본다.

다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사고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애착이 정서행동 사고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쉼터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고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다소 찾아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섯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서행동의 주의집중문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은 심리적으로 반사회적이고 충동적이면서 대인관계에 의심과 불신이 많고, 내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며,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인다(이세정, 이호준, 2010).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의심과 불신이 많다는 점은 어른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환경은 그대로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아직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의심과 불신을 더욱 제고하게 하여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일곱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규칙위반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은 정서행동 규칙위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가출청소년들은 약물, 술 등의 사용 비율이 높고(정경은 외, 2008) 가출은 비행에 영향을 주게 되며, 가출청소년은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비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철, 1998)의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은 비가출청소년에 비해 충동조절이 낮아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억제 할 수 있는 사소한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가출 행동을 선택한다고 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관심과 협조하다. 청소년의 가출원인은 자의적인 점도 있지만 타의적인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가출방지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치료프로그램도 동시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공격행동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변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은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으로 제한적이다. 이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출청소년과 청소년 쉼터조사(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2010)에서는 가출 전·후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가출이전에도 문제행동을 보였지만 가출 후 더욱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은(이혜정, 김혜원, 2001)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가운데 집단 괴롭힘 가해 행동의 주요 예

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언급한 문제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정서행동문제 중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을 포함하는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관련 추정치를 살펴보면,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서행동 내재화문제는 연령과 자아존중감,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정경은, 문성호, 2008)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정신병리를 평가하여 모든 항목에서 가출청소년들은 임상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재화 문제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서 이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및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정서행동문제 중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포함하는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교사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재화문제와 비교할 때,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의 영향력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관련된 변인은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의 외현화문제로는 약물, 술 등의 사용 비율이 높고, 재가출과 장기가출이 반복되고, 가출횟수에 따라 성비행이 증가하며 폭력피해, 학업중단의 경험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정경은 외, 2008). 외현화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은 규칙위반, 공격행동, 충동성,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박원주, 2010). 규칙위반과 공격성이 일반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현화문제를 가지고 있는 쉼터 가출청소년은 스스로 문제인식을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이 스스로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사회적 규칙과 법률을 인지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열한 번째,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정서행동문제 전체문제를 포함하는 내재화, 외현화,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를 포함한 총행동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구체적으로 관련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현화(2008)는 또래지지가 내재화, 외현화 증상을 중재하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경험하였거나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다.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다소 찾아보기 힘들다. 추후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가출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 보다 정서불안과 정신적 문제, 산만함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성격을 상실하거나 개인적인 발달과 정서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 또한 성인과 사회로부터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성인과 사회에 대해 공격적이고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반항성을 갖는 이중인격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타인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두려움과 정서적 불안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정서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서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탁상론적인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1)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8개의 하위증후군척도 중 규칙위반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공격행동, 사고문제, 위축/우울, 사회적 미성숙, 신체증상, 불안/우울, 주의집중 순으로 나타났다. 즉, 규칙위반과 공격행동, 사고문제, 사회미성숙, 등이 높게 나타났지만, 주의집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일반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외현화문제에서 규칙위반, 공격행동, 사고문제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쉼터 가출청소년의 외현화문제의 규칙위반은 임상 수준이어서, 자칫 비행 또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총행동문제 또한 높은 정도를 보였다. 이는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가 일반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가출이 문제시되는 것은 단순히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가출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위험요소, 즉 유해환경과 향락산업 등에 쉽게 젖어들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성장발달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다.

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먼저,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8개의 하위증후군척도 (준)임상의 비율을 보면 규칙위반이 61.6%, 공격 행동 29.5%, 사고문제 27.2%, 사회적미성숙과 위축/우울함이 각각 25%, 신체증상 22.8%, 불안/우울 25.0%, 주의집중장애 17.0%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출 청소년의 주된 문제가 규칙위반에 기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과 쉼터 가출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을 비교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쉼터 가출청소년의 (준)임상유형이 더 큰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준)임상 비율은 내재화문제(44.2%)보다 외현화문제(61.6%)에서 더 높았다.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과 쉼터 가출청소년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을 비교한 결과,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에서 차이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총행동문제 (준)임상(52.2%) 비율도 50%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쉼터 가출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수연(2012)의 일반청소년(중·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과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준)임상유형을 비교한 결과 쉼터 가출청소년 (준)임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의 차이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라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쉼터 가출청소년의 개인변인은 첫째, 성별 차이 분석에서 신체증상,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등 총행동문제에 있어서 성별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 차이 분석에서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문제 등 총행동문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이는 정서행동문제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정서행동문제의 자기통제력 차이 분

마지막으로,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사회변인은 첫째,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교사애착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등 총행동문제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서행동문제가 정상 수준 집단에서 교사에 대한 애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또래애착에 대한 차이 분석에서는,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등 총행동문제가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상평균이 (준)임상보다 높게 나타나, 정서행동문제가 정상수준이면 또래애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컴퓨터 만족도가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위축/우울, 주의집중문제, 공격행동, 외현화문제 등 총행동문제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정서행동문제가 정상 수준인 청소년의 컴퓨터 만족도가 더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개인변인, 가족변인, 사회변인 중 정서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관련변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개인변인의 차이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 변인의 성별(신체증상,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 등 총행동문제), 연령(불안/우울, 위축/우울, 사회적 미성숙, 내재화 문제 등 총행동문제), 자기통제력(신체증상이나,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 행동, 외현화 문제 등 총행동문제), 자아존중감(불안/우울, 신체증상, 사회적 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총행동문제)의 차이에서 정상 수준인 청소년의 컴퓨터 만족도가 가족 변인과 사회 변인보다 더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 변인은 가족변인과 사회변인의 영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어 향후 컴퓨터 청소년을 위한 치료와 교육에서 참고해야 할 주의점이라 본다.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특성이자 개인특징인 개성으로 발전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서행동문제에서 우선 고려해야 한다.

4)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

(1)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와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불안/우울과 유의한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연령, 성별과 또래애착, 부모지지, 부모애착 순이다. 둘째, 위축/우울과 유의한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부모지지, 연령, 부모애착, 성별 순으로 볼 수 있고, 셋째, 신체증상 간의 상관계수는 성별,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순이다. 넷째, 사회적 미성숙 간의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또

래애착, 자기통제력, 부모지지, 부모애착, 연령, 성별의 순이고, 다섯째, 사고문제와의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성별, 또래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주의집중문제와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교사애착, 컴퓨터만족도 순위다. 일곱째, 규칙위반과 상관계수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성별, 또래애착, 부모감독, 부모애착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공격행동과 상관관계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컴퓨터만족도, 부모감독, 성별, 순이다.

다음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내재화문제와 상관관계는,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성별 등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이고, 외현화문제와의 상관관계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성별, 부모감독, 컴퓨터만족도, 부모애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총행동문제 간의 상관계수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애착, 성별, 교사애착, 연령, 부모지지, 부모애착, 컴퓨터만족도, 부모감독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정서행동문제 중 주의집중문제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다소 무의미하며, 관련변인으로는, 부모감독, 교사애착, 컴퓨터만족도 간의 상관계수가 무의미한 비율을 보였다.

(2)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예측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불안/우울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효과는, 연령, 자아존중감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불안우울문제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일회성 가출보다는, 재가출, 반복가출, 또는 만성가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축/우울에 미치는 관련 변인의 효과에서는, 연령,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성별, 부모애착 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 부모애착이 낮을수록 위축우울문제가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 면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위축우울문제가 높았다. 셋째, 신체증상에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효과는, 자기통제력, 성별, 자아존중감 등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은 정서행동상의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며, 특히 여학생에게 신체증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넷째, 사회적 미성숙에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효과에서는 자기통제력, 연령, 교사애착,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등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변인들이 정서행동상의 사회적 미성숙 문제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사고문제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과의 효과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또래애착 등이 정서행동 사고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효과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등에서 유의한 효과로 나타나, 정서행동의 주의집중문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또래애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규칙위반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효과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자기통제력과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이 정서행동 규칙위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공격행동에 미치는 관련 변인 효과로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교사애착 등인데, 이는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교사애착이 낮을수록 공격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을 포함한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관련 변인과의 효과로는,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정서행동 내재화문제는 연령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성별이 주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행동문제 중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을 포함하는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효과로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존중감, 성별, 교사애착이 유의한 효과를 보임으로서, 내재화문제에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의 영향이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관련된 변인들이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즉 약물이나 술 등의 사용빈도가 높고, 재가출과 장기가출이 반복될 수 있고, 가출횟수에 따라 성적 비행이 증가할 수 있고, 폭력과 학업중단 등의 경험율도 점차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정도에 대한 전체 문제를 포함하는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사회적미성숙, 사고문제, 주의집중문제, 기타문제를 포함한 총행동문제에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효과에서는, 자기통제력, 연령, 자아

존중감, 성별, 또래애착 등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여, 또래 지지가 내면화와 외현화 증상을 증대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과 거부를 경험했거나 또래와의 애착정도가 낮은 집단이 문제행동을 경험하기가 쉬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 연구해 보았으나,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 부분의 후속적인 연구나 비교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제 언

본 연구의 논의 및 결과를 토대로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쉼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 [정상, (준)임상]에 따라 관련변인들 (성별, 연령,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지지, 교사애착, 또래애착, 쉼터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YSR의 척도(8개 하위증후군척도, 3개 상위증후군척도)별로 χ^2 -검증 또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통해 8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정서행동문제가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하위척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쉼터 가출 청소년들의 최초로 사회적 관계망을 끊는 곳이 다름 아닌 개인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일차적 장소인 가정과 학교라는 점을 볼 때, 쉼터 가출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의 예방을 위해서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귀가초치나 학교의 징계보다는 먼저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심리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이 격리 되어 있던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지지망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상담제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려우며 배고픔과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출청소년의 비행 정도나 문제유형, 연령 등에 맞는 특성화된 청소년쉼터의 모델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치 않은 가출 청소년도 배려하여 밤에만 쉼터를 개방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잠잘 수 있는 곳을 제공해서 최소한의 심리적, 신체

적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도 비행을 예방하는 한 가지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가출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일시쉼터에서 진행되는 아웃 리치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시쉼터는 현재 전국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주요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청소년쉼터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이 집결하는 지역에 거점 시설을 마련하고,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상주시켜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이 외부로부터 유혹과 또다시 자극을 받는 탈출 충동, 비정하고 냉혹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이 강구한 자구책은 절도나 윤락 등 사회에서 말하는 비행과 범죄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족관계 및 또래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다. 특히 정서행동문제의 유형별 구분에서 (준)임상집단의 청소년은 문제행동증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임상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계선상의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인 심리사회적 욕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가출 청소년들이 쉼터를 꺼리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쉼터 생활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쉼터에서 심리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는 기관 종사자들의 따뜻한 돌봄, 쉼터의 충분한 기본 시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상담 프로그램의 설치가 보완되어야 이들의 방황을 가라앉게 하는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쉼터와 사설치료센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쉼터에 머물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에 따른 비행과 재가출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가출예방 관련 프로그램은 사회다양화로 인해 초등학교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쉼터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재가출 방지 개입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집단정신치료, 술 및 약물남용예방, 분노조절 등에 중점을 둔 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컴퓨터 가출청소년들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언어적 표현보다는 신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이들이 자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감정용어 도표나 감정 일기를 이용하는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신체화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돕기 위해 사회기술훈련과 부모님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절대적인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컴퓨터 가출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 이 부분의 후속적인 연구나 비교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컴퓨터에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앞으로 전국 청소년컴퓨터에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강성래 (2003). **가출청소년의 대한 실태분석: 가출경험집단과 가출 미경험 집단 비교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서울.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2012).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93-222.
- 곽영숙, 이영우(1988). 입원한 행동장애아 및 청소년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7(1), 464-47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05. 12). 가정의 달 5월, 우리 아이에게 관심을. 2011. 04. 11, <http://www.hira.or.kr>에서 인출.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8, 2009, 2010). **2007~2010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서울: 저자.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부 (2012). **제 8차 (2012) 청소년건강상태 온라인조사 통계**. 충북 청원: 질병관리본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저자.
- 구자천 (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횟수의 상승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일시쉼터 (드롭인센터) 및 일시보호소 이용 가출청소년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대학원, 강원도 춘천.
- 김경준, 김지혜, 류명화, 정의중 (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희, 김지수 (2007). 고등학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3), 338-346.
- 김남희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에착관계와 학업성취간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에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동기, 홍세희 (2007). 한국청소년의 최초 가출 발생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에 대한 검증: 비연속 시간 생존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 연구**, 1(3), 267-294.
- 김문정 (2001). **가출청소년의 비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범구 (2004).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 김선희 (2002).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수원.
- 김선숙 (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We Start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선희 (2006).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감독 및 자아개념 상호작용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성경 (2008). 청소년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체계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권리학회**, 12(1), 41-59.
- 김영환, 방승규 (1976). 청년기 가출과 관계적 자아상. **신경정신의학**, 15(4), 279-285.
- 김영순, 김혜원 (2007).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관련 변인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학회**, 5(2), 43-55.
- 김유진, 김영희 (2009).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3-142.
- 김유진 (1995). **청소년들의 생활시간에 관한 조사연구: 성남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대학원, 경기도 성남.
- 김옥숙 (2008). **부모의 가정폭력이 청소년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경기도 수원.
- 김응수 (2002). **가출요인이 청소년 비행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지혜 (2005).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과정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대학원, 서울.
- 김종삼 (2008). **중장기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김현순 (2005).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현숙 (1998). **청소년의 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희화 (2004).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75-94.
- 김향초 (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향초 (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김귀연 (2005). 아동의 우측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47-266.
- 나철 (1992). **가출청소년의 가족문제 및 선도방향**, 한국청소년 연구원.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2.
- 남미애 (2011).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요인별 생활만족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03-229.
- 남미애 (1998). **여성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원방안**, 신라대학교 여성연구논집 제10집.
- 남현미 (1998)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노성호 (2005). 청소년의 비행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검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38-605.
- 노향희 (2008). **애착, 정서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류병륜 (2000).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대전.
- 문은영, 윤진 (1994).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 초기의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44-63,
- 문은식 (2003).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41(3), 349-369.
- 문지윤, 임정하(2011).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3), 79-86.
- 문제우 (2012).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8(1), 19-34.
- 민수홍 (2006). 청소년이 자기통제력의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민수홍 (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 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 경험. **청소년학연구**, 12(2), 1-25.
- 민성길, 김한중, 오경자, 이해련, 김진학, 신의진 (1997). 학교중심으로 한 초등학교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관한연구. **신경학회지**, 36(5), 821-822.
- 박금혜 (2005). 가출·비행 청소년 복지현황과 과제. **청소년 유형별 복지현황과 과제 워크숍자료집**.
- 박미자, 이창식 (2008). 조손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0(1), 93-114.
- 박소진 (2006). 여대생의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에 대한 경로모형: 신체상과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성자 (1999). 가출청소년의 MMPI 특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부천.
- 박윤희 (2011). 장·단기 가출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특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원주 (2010). 자아탄력성이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 조절과 긍정 및 부정정서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박현선 (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1), 105-129.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유해환경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배문조, 전귀연 (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35.
- 배제현 (1993). 비행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재활심리연구**, 1(1), 71-83.
- 백혜정 외 (2009).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연구보고서,
- 백혜정 (2009). 2009 아동청소년 가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1), 1-223.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애착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서보람 (2013). ‘가출팸’ 경험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서보람 (2011).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가출팸 경험실태. 2011 청소년 가출 문제와 제도개선 토론회 발표자료.
- 서찬란 (2005). 가족환경요인 및 개인심리 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서태희 (1999). 중·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부모 애착수준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손정자 (1998). 고고생의 가출 과정과 생활에 대한 분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대전.
- 송남옥 (2004).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사용 수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민진 (2006). 쉼터 거주 가출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심리적 체험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송은혜 (2006). 애착, 대처방식, 희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신지현 (2012). 가출청소년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남녀 비교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신효식, 이경주 (1997). 십대자녀가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131-140.

- 안동현, 정승아, 조재일, 정선녀, 정윤정, 김경숙, 김윤영, 최민정 (2007). **청소년 부교제 및 정신건강 선별검사도구 개발 연구**, 서울: 건강증진사업단.
- 안창규, 임은경(1994). 청소년비행과 준거집단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1), 23-49.
-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계, **부산재단연구총서**, 제21 집문당.
- 양봉환 (2008).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경기도 용인.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종합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 **‘가출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 **2014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연성진, 민수홍(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예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책임연구원**, 2004(39).
- 오경자, 김영아 (2011). **한국판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형(K-YSR)**. 서울: 휴노.
- 오승환 (2010). 청소년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2(4), 301-324.
- 오영경 (2007). **청소년의 행동문제 관련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우리나라 청소년쉼터의 현황 (2015). <http://www.jikimi.or.kr>
- 유재연, 윤희봉, 임경원, 고등영, 박경옥, 이태수 외 (2009).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유호석 (2007). **위기 및 가출청소년의 가출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대전.
- 유호석 (2008). **위기 및 가출청소년의 가출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대전.

- 윤양숙 (2013). **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쉼터 보호 중인 가출청소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북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경기도 동두천.
- 윤현영, 강진구, 주동옥, 황동아 (2005). **가출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 청소년 쉼터협의회.
- 윤현영, 김지혜, 황동아 (2006).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 매뉴얼**. 국가 청소년위원.
- 윤희진 (2012). **자기 통제력과 소비스트레스가 소비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울산.
- 윤희미 (2005). **청소년의 내제화문제 및 외현화문제행동 관련요인- 생태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1), 133-164.
- 육혜련 (2013). **통합연구방법을 적용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심리사회적 부적응과의 관계연구: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대전.
-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주, 신효식 (1997).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지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경주 (199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 대학교대학원, 광주.
- 이복희 (2008). **청소년문제와보호**. 서울: 양서원.
- 이민희, (1998).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한국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98(4).
- 이소현, 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수연 (2012).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청소년과 교사간의 평가차이 및 관련변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광주.
- 이승미 (2007). **청소년의 개인, 가족, 친구 및 학교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부산.
- 이승희 (2012). **정서행동장애 정의와 출현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8(3), 37-58.
- 이성봉, 방명애, 김은영, 박지연 (2010). **정서 및 행동장애**. 서울: 학지사.

- 이성봉 외(2015). **정서 및 행동장애** (제2판) 서울: 학지사.
- 이상무, 남성희 (2012).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을 활용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9(1), 85-108.
- 이석형 (2007).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북 경산.
- 이상준 (2011).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 위험, 보호요인의 효과: 가출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학연구**, 13(2), 271-291.
- 이세정, 이호준 (2010).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13-25.
- 이응교, 홍봉선, 윤현영 (2005).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이은정 (2000).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종성, 곽영숙(2001). 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의 정신 병리에 대한 평가와 분류.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12(2), 192-217.
- 이정자 (1973). **청소년가출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진로 (2011).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출청소년의 사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희춘 (2013). **가출청소년의 부모학대 경험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지지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현지 (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 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한국청소년 학회**, 12(4), 283-304.
- 이해경 (2011). 성매매 청소년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23-444.
-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0), 117-138.
- 이해주, 이미리, 모경환(2006). **청소년문제론**, 서울: 방송대학교출판부.
- 이훈진, 원호택(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 연구. **한국심리학회**, 95(1), 277-290.
- 이귀희, (2003). **쉼터 거주 10대 가출소녀의 집단미술치료 활동 체험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서울.
- 임규혁 (2007). **교육심리학** (제2판) 서울: 학지사.
- 장유정 (2010). **반사회적 성격평가도구의 타당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지우 (2005).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 변인, 또래 변인 및 감정 이입 의 인과적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 장휘숙 (1997). **자아 강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청소년의 비행수준과의 관계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서울.
- 장휘숙 (2001). 애착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의 관계: 사회정서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105-119.
- 전현선, 윤치연, 공나영, 김성화, 도명애, 박순길, 서석진, 서영란, 송호준, 양경애, 이수진, 이정남, 초성욱 공역 (2012). **특수교육학개론**. 경기도 파주: 양서원.
- 정경은 (2008). **서울지역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정경은, 문성호 (2008). 청소년 가출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5(1), 219-241.
- 정대영 (2013).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 정문자, 김진이, 여종일 (2010). 가출청소년이 지각한 의사소통능력 및 가족갈등이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318-333.
- 정선욱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성희 (2008). **소비자의 자기통제와 접촉용구가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여진 (2012).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운숙, 박신애 (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105-113.

- 정옥분 (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준희 (2012). **중학생의 대상 신뢰와 교사애착 및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기도 수원.
- 정혜경, 안옥희(2001).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7(4), 483-493.
- 정혜경 (200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규필 (2005).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조아미, (2011). 비행친구와 청소년가출의 관계에서 약물사용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복지연구**, 13(1), 79-95.
- 조윤희 (2012).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피해자학회**, 20(1), 211-530.
- 조학래 (2004). 가출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행전논집**, 31, 171-198.
- 지창희 (1987). **중학생의 가출원인 및 성격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서울.
- 천정웅, 이지민, 성운숙 (2013). **청소년문제와 보호**. 서울: 양서원.
- 최정아 (2010). **청소년의 학급에 관계적 괴롭힘과 우울간의 관계연구: 인지 및 대처요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자원의 조절효과 모델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2010 상담경향 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일보 2012. 10. 5. **가출청소년 폭증하는데 쉼터만 찢끔 늘린 정부**. 8면 사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7). **2007 청소년 실태보고 및 청소년쉼터 발전방안 모색**. 서울: 국가청소년협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8). **서울지역 가출청소년의 생활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협의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0).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 협의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2). **쉼터이용현황**. 서울: 국가청소년협의회.

- 하은혜, 송동호 (2005). 청소년기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 정신학회지**, 44(1), 89-97.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 유형과 대인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한상철 (2001). 청소년 폭력의 위험요인과 보호적 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8(1), 203-226.
- 한상철 (2006).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삶의 질: 위험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 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99-115.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4(1), 273-298.
- 한현아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허금진 (2008). **가출여자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산.
- 현은민 (2000). 청소년의 가출: 가족적, 개인적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41-54.
- 홍봉선, 남미애 (2007). **청소년복지론** (개정판). 경기도 고양: 공동체
- 홍봉선, 남미애 (2009). **청소년복지론** (제2판). 경기도 고양: 공동체
- 홍미란 (2009). **부모,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황미란 (1998). **가출청소년들의 청소년쉼터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4). Psychopathology of childhood. *Annualreview of Psychology*, 35(2), 227-256.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 Age Forms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dams, G. R., & Monro, (1979). Portrait of the north American runaway: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3), 357-373.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insworth, M.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8.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s-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loom, B. S. (1976). *Human characteristics and school learning*. New York: McGraw-Hill
- Buchanan, C. M. Eccles, J. S., & Becker, J. B. (1992). Are adolescents the victims of raging hormones?: Evidence for activational effects of hormones on moods and behavior at adolescence. *Journal of Psychology Bulletin*, 111(1), 62-107.
- Carey, W. B. (1998).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School Psychology Review*, 27(4), 522=533.
- Caspi, A., Henry, B., McGee, R. O., Moffitt, T. W.,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origins of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From age three to age fifteen. *Child Development*, 66(1), 55-68.
- Chen, X., Wang, L., Chen, H., & Liu, M. (2002). Noncompliance and child-rearing attitudes as predictors of aggressive behaviour: A longitudinal study in Chinese childre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25-233.
- Chun, J., & Springer, D. W. (2005).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runaway adolescents in Korea, *Child Abuse and Neglect*, 29(12), 1433-143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ullinan, D., Epstein, M. H. & Kauffman, J. M. (1984). Teacher's ratings of students' behaviors: What constitutes behavior disorder in school? *Behavioral Disorders*, 10(1), 9–19.
- de Man, A., Dolan, D., Pelletier, & Reid, C. (1993). Adolescent runaways: Familial and personal correla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5(1), 15–27.
- Dodge, K. (1993). The future of research on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1/2), 311–320.
- Doyle, A. B., & Markiewicz, D. (2005).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from early- to mid-adolescence: Mediated by adolescen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1), 97–110.
- Dubow, E. S.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0), 52–64.
- Englander, S. W. (1984). Some self-reported correlates of runaway behavior in adolescent work gro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3), 484–485.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ick, P. J. (1998). *Conduct disorders and severe antisocial behavior*. New York : Plenum Press.
- Fujiura, G. T., & Yamaki, K. (2000). Trends in demography of childhood poverty and disability. *Exceptional Children*, 66(2), 187–199.
- Gottfredson,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

-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N.J: Lawrence Erlbaum.
- Harter, S (1993). Causes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 F. Baumeister(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87-116), New york: Plenum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ogy, Bulletin*, 111(1), 127-155.
- Hosp, J. L., & Reschly, D. J. (2002). Predictors of restrictiveness of placement for African-American and Caucasian students *Exceptional Children*, 68(2), 225-238.
- Hoy, W. K, & Sweetland, S. R. (2001). Designing Better Schools: The Meaning ad Measure of Enabling School Structur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7(1), 296-321.
- Ingersoll, G. M. (1989). *Adolescent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141.
- Kauffman, J. M. (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5th ed). New York: Merrill.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1), 433-456.
- Kenny, M. E.(1990). College seniors' perceptions of parental attachments: The value and stability of family ties. *Journal of*

- Career Assessment*, 31(1), 39–46.
- Kerns, K. A., Tomich, P. L., & Kim, P. (2006). Normative trend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availability and utilization of attachment figures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5(1), 1–22.
- Kobak R. & Sceer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 135–146.
- Laible, D. J., Carlo, G.,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evinson, B. M. & Mezei, H (1970). Self-concepts and ideal self concepts of runaway youths: Counseling implications. *Psychological Report*, 26(3), 874.
- Leathers, S. 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USA.
- Maxwell, B. M. (1992). Hostility,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troubled and homeless adolescents in crisi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1(2), 139–150.
- Martinez, R. J. (2006). “Understanding runaway teens,”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9(2): 77–88.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Vol. 4: A social interactional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258–275.
- Raja, Shyamala Nada.(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ume* 21(4), 471–485.

- Roberts, A. R. (1982). Stress & coping patterns among adolescent runaway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ical*, 23(1), 156-163.
- Roberts, A. R. (1987). Runways and non-runaways. Chicago: The Dorsey Pree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F. R., & Rosenberg, M. (1978), Self 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 Rohr, M. E.(1996). Identifying adolescent runaways: The predictive utility of the personality for children. *Adolescence*, 96(31), 605-623.
- Rudan, V., Begovac, I., Szivovicza, L., Filipovic, M. (2005),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teacher report from and youth self report problem scales in a nomative sample of Croatian Children and adolescent aged 7-18. *Collegium Antropologicum*, 29(1), 17-26.
- Smit, J. D., & Prior, M. (1995). Temperament and stress resilience in school-age children: A within-families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ren and Adolescent Psychiatry*, 34(2), 168-179.
- Smart, R. G., & Walsh, G. W. (1993). Predictors of depression in street youth. *Adolescence*, 28(1), 41-53.
- Sprague, J., & Walker, H. (2000).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for youth with antisocial and violent behavior. *Exceptional Children*, 66(3), 367-379.
- Tepper, P., Liu, X. C., Guo, C., Z., & Li, C. Q. (2008). Depressive stmpyoms in chinese children and adolescents: Parent, teacher, and self repor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1(2), 291-298.
- Thompson, S. J., Bender, K., & Kim, J. 2011. "Family Factor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Runaway Youth: Do Males and Females Differ?". *Child Adolescent Social Work*. 28(1), 35-48.
-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5). Informant, gender and age

- differences in ratings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ur.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4(3), 117–126.
- voydanoff, P. & Donnelly, B. W.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grad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20(3), 328–349.
- Unger, J. B, Kipke, MD, Simon, T. R, Johonson, C. J, Montgomery, S, B, & L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34–157.
- Werry, J. S. (1979). The childhood psychoses. In H. C. Quay and J. S. Werry (Eds.),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2nd ed., pp. 43–89). New York: Wile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 심리상담 센터 소장으로 있는 유향숙입니다.

본 설문지는 가출청소년 여러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모든 문항들을 잘 읽고 귀하께서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는 바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의 정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답변 하나하나가 귀중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응답하신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통계 처리될 것입니다.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유향숙
 지도교수 이승희 드림

(연락처) E-mail : 4jamel@hanmail.net

직장전화 : 032 - 677-0675

휴대전화 : 010-2756-3011

I. 기초사항 질문지

기입요령	
※ 해당되는 항목의 밑줄 위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성별: 1) 남 2) 여 2. 귀하의 출생년도: _____ 년 3. 종교: _____ 1) 있다. (종교: _____) _____ 2) 없다.	5. 형제 수: _____ 1) 형 또는 오빠 (명) _____ 2) 누나 또는 언니 (명) _____ 3) 누나 또는 언니 (명) _____ 4) 남동생 (명) _____ 5) 여동생 (명) 6. 가정경제 수준: _____ 1) 매우 잘 산다. _____ 2) 잘 사는 편이다. _____ 3) 보통이다. _____ 4) 못 사는 편이다. _____ 5) 매우 못 산다.

Ⅱ. 자기통제력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 문항은 평상시에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잘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활동에 불쑥 끼어들어 참견이나 방해한다.	1	2	3	4	5
2	나는 급하게 일을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1	2	3	4	5
3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즉시 하거나 가지려 한다.	1	2	3	4	5
4	나는 사람들과 같이 놀거나 공동 작업을 할 때 다투거나 잘 싸운다.	1	2	3	4	5
5	나는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한다.	1	2	3	4	5
6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가 없다.	1	2	3	4	5
7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한다.	1	2	3	4	5

Ⅲ. 자아존중감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 문항은 평상시에 여러분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잘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5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IV. 부모애착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을 모르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해당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지금의 부모님 대신에 다른 부모님이 있었으면 한다.*	1	2	3	4	5	6
2	나는 부모님께 화가 나 있다.*	1	2	3	4	5	6
3	나는 부모님을 믿는다.	1	2	3	4	5	6
4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	1	2	3	4	5	6
5	나는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6	나는 내 생각과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다.	1	2	3	4	5	6

주: *은 역산처리문항임.

V. 부모감독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은 평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한쪽만 해당되어도 괜찮습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이름을 물어보신다.	1	2	3	4	5
2	내가 집 밖에 있을 때 언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신다.	1	2	3	4	5
3	내가 혼자 어디를 가든지 간섭하지 않으신다.	1	2	3	4	5
4	내가 외출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물어보신다.	1	2	3	4	5
5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규칙을 정해 주신다.	1	2	3	4	5
6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많으시다.	1	2	3	4	5
7	내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하신다.	1	2	3	4	5
8	일이 있어서 집에 늦게 들어 올 때는 항상 사전에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다.	1	2	3	4	5
9	외출할 때, 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을 물어보신다.	1	2	3	4	5
10	내 친구들의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을 물어보신다.	1	2	3	4	5

VI. 부모지지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한쪽만 해당되어도 괜찮습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1	2	3	4	5
2	부모님과 나는 서로 많이 돕는 것 같다.	1	2	3	4	5
3	나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4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	2	3	4	5
5	내가 힘들어 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6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7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8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VII. 교사애착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 문항들을 여러분과 선생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공부나 다른 문제로 힘들어 할 때 선생님께 제일 먼저 의논하고 싶다.	1	2	3	4
2	선생님은 내가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아신다.	1	2	3	4
3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다.	1	2	3	4
4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	1	2	3	4
5	선생님은 내가 수업에 흥미가 있는지를 잘 아신다.	1	2	3	4
6	선생님은 내가 질문에 대답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1	2	3	4
7	선생님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8	선생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신다.	1	2	3	4
9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 주신다.	1	2	3	4
10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신다.	1	2	3	4
11	선생님은 내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 주신다.	1	2	3	4
12	선생님은 내가 원할 때마다 항상 나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다.	1	2	3	4
13	선생님은 내가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금방 눈치 채신다.	1	2	3	4
14	선생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	1	2	3	4

VIII. 또래애착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은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들을 읽고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잘 나타내 주는 칸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1	2	3	4
2	내 친구들은 내가 잘 지내는지 염려해준다.	1	2	3	4
3	나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1	2	3	4
4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내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내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1	2	3	4
6	나는 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에게 다른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1	2	3	4
8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내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9	나는 내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화를 낸다.	1	2	3	4
10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롭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1	2	3	4
11	내 친구들은 이유 없이 나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	1	2	3	4
12	친구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나는 수치스럽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1	2	3	4

IX. 쉼터만족도 질문지

기 입 요 령	
※ 다음은 청소년 쉼터 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 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2	쉼터에 계신 선생님과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3	쉼터의 식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쉼터의 잠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쉼터의 생활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쉼터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X. 청소년 정서행동특성 질문지

기 입 요 령			
※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가까운 항목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난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0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 -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 2 -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			

문 항	내 용	전 혀 아 니 م	가 끔	자 주	문 항	내 용	전 혀 아 니 م	가 끔	자 주
1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0	1	2	22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0	1	2
2	나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술을 마신다. 구체적 내용: ()	0	1	2	23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0	1	2
3	말다툼을 많이 한다.	0	1	2	24	잘 먹지 않는 편이다.	0	1	2
4	자기가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	0	1	2	25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지 못한다.	0	1	2
5	즐기는 것이 매우 적다.	0	1	2	26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잘못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0	1	2
6	동물을 좋아한다.	0	1	2	27	샘을 잘 낸다.	0	1	2
7	나는 허풍을 잘 친다.	0	1	2	28	나는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장소에서 규율을 어긴다.	0	1	2
8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힘들다.	0	1	2	29	특정한 동물이나 상황, 장소(학교는 제외)를 두려워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9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한다. 구체적 내용: ()	0	1	2	30	학교에 가는 것이 겁난다.	0	1	2
10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다.	0	1	2	31	나는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렵다.	0	1	2
11	어른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0	1	2	32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느낀다.	0	1	2
12	외로움을 느낀다.	0	1	2	33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0	1	2
13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겠다.	0	1	2	34	나는 남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고 느낀다.	0	1	2
14	잘 운다.	0	1	2	35	나는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느낀다.	0	1	2
15	나는 꽤 정직하다.	0	1	2	36	나는 사고로 잘 다친다.	0	1	2
16	남에게 못되게 군다.	0	1	2	37	나는 싸움을 많이 한다.	0	1	2
17	공상을 많이 한다.	0	1	2	38	놀림을 많이 받는다.	0	1	2
18	고의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기도를 한다.	0	1	2	39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	0	1	2
19	관심을 많이 끌려고 노력한다.	0	1	2	40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때가 있다. 환청 구체적 내용: ()	0	1	2
20	내 물건을 부순다.	0	1	2	41	생각해 보지도 않고 행동한다.	0	1	2
21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다.	0	1	2	42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문항	내 용	전혀 아님	가 끔	자 주	문항	내 용	전혀 아님	가 끔	자 주
43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다.	0	1	2	58	나의 피부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를 뜯는다. (구체적 내용:)	0	1	2
44	손톱을 깨문다.	0	1	2	59	나는 상당히 불임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	0	1	2
45	나는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0	1	2	60	새로운 것을 해보길 좋아한다.	0	1	2
46	몸을 움찔거리리는 등 신경과민성 동작을 보인다. (눈 깜박임, 안면 떨룩거림 등 포함) (구체적 내용:)	0	1	2	61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다.	0	1	2
47	악몽을 꾀다.	0	1	2	62	운동신경이 좋지 않고 움직임이 어설피다.	0	1	2
48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0	1	2	63	내 또래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있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49	나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0	1	2	64	내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	1	2
50	나는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 한다.	0	1	2	65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0	1	2
51	어지럼증이 있다.	0	1	2	66	특정한 행동을 계속 되풀이 한다.	0	1	2
52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67	가출한다.	0	1	2
53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	1	2	68	고함을 지른다.	0	1	2
54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치게 피곤해 한다.	0	1	2	69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0	1	2
55	체중이 너무 나간다.	0	1	2	70	나는 헛것을 볼 때가 있다. (환시)	0	1	2
56	뚜렷한 의학적 원인 없이 나타나는 신체적 문제가 있다.				71	나는 남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거나 쉽게 무안해 한다.	0	1	2
	a.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제외)	0	1	2	72	불을 지른다.	0	1	2
	b. 두통	0	1	2	73	손재주가 있는 편이다.	0	1	2
	c. 메스꺼움	0	1	2	74	과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0	1	2
	d. 눈의 이상 (안경으로 교정된 문제는 제외)	0	1	2	75	나는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소심하다.	0	1	2
	e. 발진 혹은 기타 피부의 이상	0	1	2	76	보통 아이들보다 잠을 적게 잔다.	0	1	2
	f. 배앓이 혹은 복통	0	1	2	77	보통 아이들보다 낮이나 밤에 잠을 많이 잔다.	0	1	2
	g. 구토	0	1	2	78	나는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 진다.	0	1	2
	h.기타 (구체적 내용:)	0	1	2	79	말하기에 문제가 있다.	0	1	2
57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0	1	2	80	내 권리는 지킨다.	0	1	2

문 항	내 용	전 혀 아 니 م	가 끔	자 주	문 항	내 용	전 혀 아 니 م	가 끔	자 주
81	우리 집에서 물건이나 돈을 훔친다.	0	1	2	103	나는 불행하거나 슬프고 우울하다.	0	1	2
82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 이나 돈을 훔친다.	0	1	2	104	다른 아이들보다 소란스럽다.	0	1	2
83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많이 모아 둔다.	0	1	2	105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술이나 담배는 제외)	0	1	2
84	남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	0	1	2	106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	0	1	2
85	남들이 알면 이상하다고 여길 생각을 한다.	0	1	2	107	유쾌한 농담을 즐긴다.	0	1	2
86	고집이 세다.	0	1	2	108	나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좋다.	0	1	2
87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0	1	2	109	힘이 닿는 한 남들을 도우려 노력 한다.	0	1	2
88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긴다.	0	1	2	110	(남자인 경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한다. (여자인 경우)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 한다.	0	1	2
89	나는 의심이 많다.	0	1	2	111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90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0	1	2	112	나는 걱정이 많다.	0	1	2
91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0	1	2	113	알레르기	0	1	2
92	남들을 웃기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114	천식이 있다.	0	1	2
93	나는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0	1	2	115	(남자인 경우) 여자처럼 행동한다. (여자인 경우) 남자처럼 행동한다.	0	1	2
94	남을 잘 놀린다.	0	1	2	116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때 기꺼이 그들을 돕는다.	0	1	2
95	나는 성미가 급하다.	0	1	2	117	상상력이 풍부하다.	0	1	2
96	성(sex)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0	1	2	118	청결 정돈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경 쓴다.	0	1	2
97	남을 해치겠다고 위협한다.	0	1	2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8	남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0	1	2					
99	나는 담배를 피운다.	0	1	2					
100	수면(잠자기)에 문제가 있다.	0	1	2					
101	수업을 빼먹거나 학교에 무단결석 하기도 한다.	0	1	2					
102	기운이 별로 없다.	0	1	2					